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

박준범, 권병구, 김민기, 박홍민, 오경석

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004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

박준범 권병구 김민기 박홍민 오경석

서울특별시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책임연구원	박준범	한국은퇴아카데미 대표
공동연구원	권병구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김민기	(사)한국조정중재협회 사무총장
	박홍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금융학과 겸임교수
	오경석	한국은퇴아카데미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여러 유형중 중장년층 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1인 가구의 여러 현상 및 문제점을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양산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

- 1인 가구의 특성 중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

- 특히, 노인 가구 및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와 다른 이질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고립·고독사 등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차별적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사회 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였던 중장년층 세대가 행복한 노인층 세대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 대안을 융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되,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 노인층 1인 가구 등과의 비교분석도 함께 수행

○ 연구방법은 실증분석, 문헌조사, 인터뷰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 실증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18년 제13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자료 분석은 χ^2 검증, ANOVA 검증, t-test, 다중회귀분석도 실시

- 문헌조사는 기존 연구보고서 중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재검토하고 해외사례도 함께 조사

- 인터뷰조사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고립 등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 등을 직접 수집

- 전문가 자문도 실시하여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모색

□ 연구의 결론 및 제언

- 실증분석 결과,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타 계층인 중장년층 여성, 노인층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사회적 문제에 있어 열악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고립·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 동안의 삶의 경험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체험도 많은 계층이어서 상대적으로 자부심이 높고 고정관념이 강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스스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방안, 즉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고립·소외를 넘어 교류와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한편,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의 경우 삶의 기본적 요소로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다른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

- 기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경제적 문제 외 신체적 문제 및 정신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전 부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고착화 된 가난이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
- 중장년층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싶어하나 소득과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청년 및 노인 일자리에 주력
- 따라서, 소외층에 대한 우선 처방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고 해소 및 자신감 회복이 시급

- 결론적으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지나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가 제반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에 지원방안 도출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려한 유형별 접근이 필요
- 또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도 전체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만 해당되는 방 안 뿐 만 아니라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안도 함께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
- 따라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과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함께 제시

○ 제안한 융복합적 지원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으로서 경제적 안정도와 사회적 고립 리스크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4가지 유형에서 각각의 지원방안을 도출

- 경제적 안정도가 높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활발한 생활안정가구, 경제적 안정도는 높으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서 고립 리스크가 높은 고립위험가구, 사회적 고립리스크는 낮으나 경제적 안정도가 낮은 경제불안가구, 경제적 안정도가 낮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떨어지는 생활취약가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각 유형별 지원방안은 다음의 표와 같음

- 둘째,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 지원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현재 늘어만 가는 1인 가구에 대응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취약 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형화 되고 전문화 된 형태의 접근이 아닌 실무 중심의 단발성 접근이 대다수

    → 이에, 고립·고독사 등으로 야기되는 1인 가구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1인 가구에 대한 이질적 속성이 감안된 융복합적인 유형화 작업과 기준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

  - 둘째,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밀착·맞춤형 복지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재원이 한정적인 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화 된 시스템식 운영이 필요

    → 이에, 거점형 센터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지원의 종합적인 실행 및 구심적 역할 수행하고, 민간 협력 협의체 중심으로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 수행함을 제안 (거점형 센터 신설 및 협의체 확대 운영)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

<table>
<tr><th></th><th>경제적 지원</th><th>건강적 지원</th><th>사회적 지원</th></tr>
<tr><td>생활
안정
가구</td><td rowspan="2">-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 자산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지역 중심의 교육 (예: 50+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 자산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지역 중심의 교육 (예: 50+ 교육) 프로그램 확대</td><td rowspan="2">- 주기적 건강 검진 건강상담 서비스
- 중장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td><td>- 세부 그룹별 모임 활성화
- 경제불안가구 및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td></tr>
<tr><td>고립
위험
가구</td><td>- 지역모임/동호회를 통한 사회 관계망 형성
• 결혼지원프로그램
• 사회관계형성프로그램 및 세부 그룹별 모임 지원 (지역친목모임/동호회 모임 등)
→ 고립되지 않고 각 지원센터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여 (홍보, 이벤트 등)</td></tr>
<tr><td>경제
불안
가구</td><td rowspan="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한시적)
-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 정부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일자리, 지역 민간 단체 일자리 우선 제공
•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아르바이트 요원으로 참여
• 일자리 지원과 함께 일과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실시</td><td rowspan="2">- 주기적으로 병원 (보건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
→ 지역 보건소 및 시립병원 활용</td><td>- 일자리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기본급 개념의 유료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td></tr>
<tr><td>생활
취약
가구</td><td>- 정부가 특별관리(직접 관여)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참가를 전제조건화
•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 실시
- 행정적 지원이외에도 다양한 NPO단체나 지역의 자원봉사자와의 연계지원</td></tr>
</table>

- 셋째, 1인 가구를 위한 기타 지원 방안으로 1인 가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이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 하도록 홍보(NPO 등을 활용한 사회운동 형태 등), 다인 가구 중심으로 된 제반 인프라를 1인 가구도 고려하여 재정비(법적 차별성 개선, 취약계층 종합적 지원 목적하 관계자에 한해 개인정보 일부 공유 등), 자원봉사 전담인력 양성(교육) 등을 제안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 범위 ····· 7

2. 연구 방법 ·····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 11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1

1. 사회적 고립 ····· 11

2. 1인 가구 ····· 13

3. 중장년층 1인 가구 ····· 21

제2절 해외 사례 ····· 26

1. 일본 사례 ····· 26

2. 영국 사례 ····· 47

3. 미국 사례 ····· 53

4. 해외사례로 본 시사점 ····· 58

제3장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성 ····· 61

제1절 실증분석 ····· 61

1. 조사 개요 ····· 61
2. 기술통계 및 비교분석 ····· 67
3. 회귀분석 ····· 80
4. 실증분석에 따른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 88

제2절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인터뷰조사 ····· 91

1. 인터뷰 참여자들의 주요 특징 ····· 91
2.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 형성 과정 ····· 92
3.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 93
4.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 95
5.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 97
6.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경제적 문제 ····· 98
7.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희망사항 ····· 99

제3절 전문가 자문 ····· 102

1. 자문 개요 ····· 102
2. 자문 주요내용 ····· 102

제4절 시사점 ····· 105

제4장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 109

제1절 개요 ····· 109

제2절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집중적 지원방안 ····· 111

1.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유형 분류 ····· 111
2.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유형별 특성 및 지원방안 ····· 112

제3절 전체 1인 가구 포괄적 지원방안 ····· 121
1. 1인 가구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 ····· 122
2. 융복합 지원을 위한 거점형 센터 신설 및 협의체 확대 운영 132
3. 1인 가구를 위한 기타 지원 방안 ····· 136

제5장 결론 ····· **139**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제언 ····· 139

제2절 연구 성과 및 한계점 ····· 144

부 록 ····· **146**

참고문헌 ····· **153**

표 목차

[표 1-1] 50+세대 연령별 성별 1인 가구 비중 ····· 3
[표 2-1] 고립사 발생확률 및 통계 ····· 28
[표 2-2] 사회적 고립 지표별 예방 방법 ····· 36
[표 2-3] 남녀·연령 구분별로 본 사외적 고립 요인 ····· 38
[표 2-4]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 43
[표 3-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 69
[표 3-2]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와 비교집단과의 분석 ····· 76
[표 3-3]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내 혼인상태별 비교분석 ····· 78
[표 3-4]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 ····· 81
[표 3-5] 독립변수 특성별 탐색적 분석 ····· 83
[표 3-6]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 모형 ····· 85
[표 3-7]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 계수 ····· 87
[표 3-8]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비교(상대적) ····· 89
[표 3-9]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인터뷰 참여자 특징 ····· 92
[표 4-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 ····· 119
[표 4-2] 유형지표 개발을 위한 1인 가구 구분 및 분류표 ····· 124
[표 4-3] 1인 가구 유형 지표 ····· 124
[표 4-4] 유형지표별 지원방안 ····· 129
[표 5-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 ····· 142

그림 목차

[그림 2-1] OECD 국가의 사회적 고립도 현황 ····· 27
[그림 2-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흐름도 ····· 45
[그림 2-3]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 단계 ····· 47
[그림 2-4] 영국 성인중 외로움 체감율(%) ····· 50
[그림 2-5] 외로움에 대한 45+ 성인의 비율 ····· 55
[그림 2-6] 커넥트투어펙트의 외로움 자가 진단표
「How Connected Are You?」 ····· 58
[그림 4-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세부 유형 분류 ····· 112
[그림 4-2] 1인 가구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도 ····· 123
[그림 4-3] 1인 가구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도 ····· 13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전체 가구의 전형적인 가구형태로 자리매김

-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990년 9.0%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5년 27.2%로 가장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28.6%를 차지[1)]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2018

-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도시에서는 공통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절대적 수준에 육박[2)]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에서 중장년층 남성가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인데, 이러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 전체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3)], 이전 세대와 다른 이질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5.0%에서 2017년 11.6%로 6.6%p 증가하였는데, 여성이 2000년 5.6%에서 2017년 11.5%로 5.9%p 증가한 반면, 남성은 2000년 4.3%에서 2017년 11.6%로 7.3%p 증가[4)]

- 1인 남성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5~34세 비율이 2000년에는 37.9%에서 2017년 23.8%로 14.1% 감소한 반면, 45~54세 비율은 12.4%에서 19.4%로 7.0%p 증가하였고, 55~64세 비율은 8.6%에서 16.7%로 8.1%p 증가[5)]

- 남성 1인 가구수는 268만 가구로서 여성 1인 가구 272만 가구에 근접[6)]

- 특히, 중장년층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편[7)]

---

2) 1인 가구의 비중이 핀란드 41.0%, 스웨덴 36.2%, 일본 32.4%, 영국 30.6%, 미국 26.7% 이며 (OECD 2014), 도시 기준으로는 스톡홀름 60%, 암스테르담 55%, 도쿄 50%, 쥬리히 47%, 비엔나 46% 수준

3) 김종숙 외, 2014

4)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2018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2018

6) 정인 외, 2018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7)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2018

[표 1-1] 50+세대 연령별 성별 1인가구 비중

	50세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남성	12.7	12.8	12.7	13.5	12.8	13.4	12.5	12.7	12.7	13.5	12.8	13.5	12.6	13.1	12.3
여성	8.2	8.6	8.8	9.5	9.7	10.6	10.9	11.7	12.6	13.7	14.0	15.1	15.2	16.2	16.6

- 근본적으로 1인 가구는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성별, 연령층, 혼인 및 소득 상태 등에 따라 이질성이 큰 것으로 분석[8)]

-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으로는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자존감과 자부심이 강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직장 네트워크 외의 기타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절된 상태이고 직장 네트워크도 퇴직과 더불어 소수 모임으로만 형성

○ 더욱이 중장년층(50~64세)은 시기적으로 노후(65세 이후)로의 진입 직전단계로서 이들의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상태는 노후 빈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9)] 고립·고독사 등 고령사회에서의 제반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85%에 달하며, 특히 40~50대 고독사 비율이 56.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10)]

- 성별 1인 가구의 생활 만족도가 여성(40대 78.5 → 50대 72.6) 대비

8) 변미리 외, 2008; 정운영 외, 2011; 반정호, 2012; 강은택 외, 2016; 박미현, 2016
9) 박미현, 2016
10) 서울시 복지재단, 2016

남성(40대 67.9 → 50대 51.4)이 절대적으로도 낮고 50대에 급격히 하락[11)]

-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 가구가 삶의 만족도가 낮은데(여성 3.21 vs 남성 2.98; 5점 척도) 이는 중·장년기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취약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12)]

○ 반면,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종합적 관점에서 1인 가구의 특성 및 현상, 지역별 실태조사 등 지자체 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독거노인 등 노년층 및 여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노인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자살, 정신적·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13)]

- 서울시 지자체, 경기복지재단 등에서는 각 지역별 1인 가구 실태 파악 및 주거, 소득, 안전, 건강 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다수 수행

- 이렇듯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50대 이후 여성 1인 가구의 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남성의 연구는 중요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됨

11) 정인 외, 2018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12) 박미현, 2016
13) 김윤영, 2018

- 하지만, 최근의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고독사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통계치 및 여성 1인 가구 대비 남성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보고[14]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더불어 양산되고 있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이질적 속성 파악 및 고립·고독사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노인빈곤으로의 연결고리 차단 등의 정책적 함의를 융·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대안 제시의 경우, 단편적인 정책대안 발굴보다는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융·복합적 대안으로 접근하여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도 함께 행복한 노년세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중심으로 제시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여러 유형 중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써, 1인 가구의 여러 현상 및 문제점을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양산되고 있는 중장년층 남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하고자 함

- 1인 가구의 여러 특성 중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만의 차별화 된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
  - 통계적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분석결과를 도출

14) 박미현, 2016 ; 정인 외, 2018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 특히, 노인층 가구 및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와 다른 차별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고립·고독사 등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중점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문제의 원인을 차별적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파악
- 또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요소를 파악하여 해결책 제시에 활용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중장년층 세대가 행복한 노년세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 관점에서 여러 정책적 대안을 융·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연구가 1인 가구 전체 또는 노인세대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정책대안 또한 중장년층 남성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특성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목표
- 특히,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가 어느 부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여 해결책의 핵심 방향성을 제시
- 또한, 베이비부머의 다양성 및 기존 노인세대와 차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융·복합적 대안 제시를 목표
  - 그동안의 연구는 각 분야(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별 문제에 대해 정형화되고 전문화 된 형태의 접근이 아닌 실무 중심의 단발성 처방이 대다수로 파악되는 바, 실효성을 높인 융·복합적 정책 발굴이 시급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

- 그 동안의 연구는 1인 가구 전반 또는 노인세대, 여성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연구범위의 초점을 맞춤

- 분석의 다양화를 위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유(1인 가구 발생 원인)별 분석도 함께 수행[15)]

○ 더불어,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 노인층 1인 가구 등과의 비교분석도 함께 수행하여 성별 세대별 차별성 분석도 함께 수행

2. 연구 방법

○ 실증분석

- 기본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18년 제13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현재 13차 조사까지 수행되었음

  • 이 패널 조사는 전 국민의 경제활동, 가구경제, 주거, 건강 및 보건의료, 가족관계, 사회보험 및 개인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패널 조사임

15)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1인 가구 발생 사유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기타 등 6개로 구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사별, 이혼/별거, 미혼 등 3개로 분류

- 이 자료에는 인구집단별 변수 외에 주거환경과 가족관계 등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영역, 사회적 친분관계 등 본 연구가 규명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차별적 특성과 생활현황 분석에 필요한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분석은 타 가구 집단과의 비교분석 시 χ^2 검증과 ANOVA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도 실시할 예정임

○ 문헌조사

- 정부기관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학교 등 연구기관에서 완료한 기존 연구보고서 중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
  -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취약계층 중심의 심층조사 및 이에 대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
- 또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1인 가구 현상 및 일본 정부·지자체·민간영역(자원봉사자 및 NPO 등)에서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조사
  - 일본 사례는 융복합적 대안 도출시 활용
- 영국, 미국 등에서의 1인 가구 지원책도 함께 조사

○ 인터뷰조사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고립 등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및 문제점 등을 수집
- 인터뷰 대상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내 다양한 여러 집단을 포함하여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나온 여러 요소들을 실제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장년층 남성이 겪고 있는 실제적·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수렴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

-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구, 노인계층 등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직접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등의 현장 전문가 자문 실시
- 이를 통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모색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사회적 고립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문제이며, 특히 가족 중심으로 작동해온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지 자원의 축소는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접근이 필요함

- 이상철 외(2017)는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서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사회적 고립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객관적 사회적 고립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만이 유의하고,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만이 유의함을 고찰

- 이명진(2014)은 '고립과 단절의 사회, 그 사회적 원인과 대응'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을 1인 가구로 규정하고, 최근 1인 가구 급증에 사회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세대별, 성별 현실의 다차원성의 규명이 필요함을 강조
  -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두 차례의 경제위기 속에 진행된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이혼 등으로 전면적인 삶의 재편을 경험한 40대, 50대의 1인 가구와 고령화로 인해 빠른 증가폭과 속도를 보이는 60대 이상의 사별 1인 가구 등 고립사회의 일면으로서의 1인 가구에 대한 이론적 탐구 및 학문적 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

- 박미진(2010)은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256명에 대한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5.5%는 극도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다고 하고, 31%의 대상자들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였다고 조사
  - 또한 지역사회 인식은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검증
  -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입 당위성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관계를 강조한 '사회적 고립 예방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더욱이, 사회적 고립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에 대해 앞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범사회적으로 보다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긴요함

- 이묘숙(2012)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아짐을 분석하였고,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고, 이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 박진영(2016)은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 분석하여 아래의 3가지 결과를 도출

  • 사회적 고립은 자살생각에는 정(+)의 관계를 보였고 자살하지 않는 이유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

  • 둘째,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냄

  • 셋째,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에 대한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하위요인별 조절효과에 있어서 가족동맹, 자살두려움, 자기수용, 또래수용 및 지지요인 등은 조절효과가 있으나, 미래낙관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1인 가구

○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경우 연령별, 성별에 따른 상이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세대별, 성별 현실의 다

차원적인 규명이 필요함

- 실제로 평균 결혼 적령기의 지연과 다양한 사유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20대, 30대 청년층 미혼 1인 가구와 두 차례의 경제위기 하에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따른 실직으로 인해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40대, 50대의 중장년층 이혼 1인 가구,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인층 사별 1인 가구 등이 큰 틀 안에서 공존하므로 사회적 고립의 일면으로서의 1인 가구에 대한 이론적 탐구 및 학문적 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김혜영(2014)은 '유동하는 한국가족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세대적 특성과 함께 1인 가구의 형성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 집단을 유형화할 경우 크게 미혼의 청년세대와 이혼한 중장년 가구, 노인 단독가구로 구분할 수 있음을 주장

  • 특히, 중년세대는 이혼으로 인해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코호트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혼 역시 계층화와 맞물려 있음을 강조

- 김대일(2018)은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에서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성별 연령별 1인 가구가 증가한 양상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

  •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확대 자체 보다는 그 배경 원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 김연옥(2016)은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 특성과 생활실태' 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변동은 1인 가구 출현 여건을 형성하였으며, 가족인구학적 변동인 만혼과 비혼 확산, 이혼의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직접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로 연결됨을 고찰

- 또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9차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해 빈곤화, 여성화, 노령화로 정의

- 이명진 외(2014)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
  - 1인 가구의 경제수준은 동일조건의 다인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
  - 1인 가구의 인적교류나 연결망의 경우 유대의 결여나 고립현상이 두드러짐. 즉, 1인 가구가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슬픔의 정도가 더 큼
  - 따라서 1인 가구를 전체 사회와 연계시켜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개입과 정책적 대책이 확대되어야 함
- 이여봉(2017)은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급증은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1인 가구의 공통적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면과 정서적 육체적 건강 면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점을 고찰
  - 따라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은 각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빈곤과 주거 및 건강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주장
- 반정호(2012)는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은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다수의 가구가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하는 적자 가구로 분석되어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음을 고찰
- 이희연(2011) 외는 '1인 가구의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에 대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젊은 층의 결혼 지연과 독신의 확대,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

-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수준 등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1인 가구의 성장패턴을 보임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직면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문제는 상당히 다를 것이므로 사회복지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정경희(2012)는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우리나라의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보장 혜택, 그리고 주거혜택과 소비시장 등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

  - 또한, 1인 가구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안전 등 삶의 영역에서 일반 가구에 비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이민홍(2015)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위험요인인 저소득, 미취업, 건강저해 행동, 저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정신건강 저하, 가족해체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유형화

  - 특히 건강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정책적 대상으로 40대 중년 1인 가구에 대해 새롭게 분석

○ 1인 가구의 경우 자체적인 이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일반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인지하고 보다 다양하면서 세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이나 소득 불

평등과 빈곤 측면에서, 그리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강은택 외(2016)는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에서 전체가구와 1인 가구의 평균 삶의 만족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는 3.40점인데 반해, 1인 가구는 3.16점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삶의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을 발표

- 윤승비 외(2018)는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비교 분석'에서 한국노동패널 KLIPS(1차~19차)의 2006년, 2011년, 2016년에 대한 1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은 다인가구의 소득 불평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

- 하지경 외(2017)는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습관적 소비, 생활시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비1인 가구와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1인 가구는 각 세대별로 형성 배경이 다르므로 동일한 1인 가구라도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을 보임을 제시

  - 40~50대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교육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사는 1인 가구와 이혼에 의한 1인 가구가 대표적 형태로 정의

  - 중년기 1인 가구의 요인별 특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은 자가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월세 비중이 높은 등 주거실태에서 남녀차이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위상, 결혼상태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다양성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

  - 또한, 1인 가구는 비1인 가구에 비해 건강관리에 소홀한 편이고, 건강행위 점수도 낮게 나타나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중년기 1인 가구는 흡연율과 과음하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필요함을 강조

○ 최근 들어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을 통한 이론적 정립과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변미리(2009) 외는 '1인 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정책리포트에서 유럽도시는 나홀로 가구가 전체가구의 40%수준이고, 동경은 45%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울도 20%시대에 진입하였음을 제시

  • 특히 서울 1인 가구는 30세 미만 청년, 30~50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서울 1인 가구는 다음의 4種 4色의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

  • 즉, 도시의 트랜드 세터로서의 골드 미스 미스터 그룹,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그룹, 해체된 가족의 결과인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사회의 중심세력으로서의 실버세대 그룹 등

  • 서울 1인 가구 대다수는 빈곤 문제를 안고 있어 10명 중 7~8명이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이며, 취업자 과반수가 서비스직과 판매직의 블루칼라 직업군

  • 따라서,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불안한 독신자 그룹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정 재구성화를 위한 지역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

- 변미리(2015)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한국 23.9%, 그 중 서울이 24.4%, 북유럽 35%초과, 미국 26.8%, 일본 29.5% 등으로 조사

- 1인 가구의 증가요인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가 존재하는데,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젊은 세대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너무나 경쟁적인 한국 교육환경을 탈피하고자 하는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비자발적 독신층 증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을 제시
-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와 정책수요 조사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 이선희 외(2015)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서울시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령별로 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 등 공간권역이 다르게 나타남을 분석
  - 20대는 대학가근처 주택, 30대는 전월세 주택, 40~50대는 월세 주택, 60대 이상은 연면적 40m2 이하의 주택을 선호함을 제시
- 김윤영(2018)은 '1인 가구의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 인천지역 중심' 연구에서 인천지역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1인 가구 현황과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에 대해 연구
  - 한국복지패널 1차~1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과 고용, 건강 및 주거, 삶의 만족도에서 세대 공통적으로 경인지역 1인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도출
  -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제시
- 인천연구원은 2018년 인포그래픽스에서 인천지역 1인 가구의 특성으로 타지역과 달리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40~64세)이 45.0% 수준으로, 청년층 29.4%, 노년층 24.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남성이 55.4%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하여 제시

- 김진희(2018)는 '1인 가구의 이웃관계 특성과 사회적 고립수준'에 대해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
- 한성민(2018)은 '1인 가구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1인 가구 세대별 특성 중심으로'에서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하여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1인 가구도 세대별 특성에 따라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구분하여 분석
  -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삶의 질 인식에 있어 취약성을 보였으며, 전체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에는 성별, 혼인상태, 월소득, 일자리만족, 월세부담, 생활환경, 거주지안전, 봉사활동,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주며, 행복한 삶에는 성별, 일자리만족, 봉사활동, 여가동반자,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주며, 만족스런 삶에 대해서는 학력, 거주지역, 고용형태, 월소득, 일자리만족, 생활환경, 봉사활동, 여가동반자,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삶에는 성별, 일자리만족, 생활환경, 거주지안전,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행복한 삶에는 성별, 일자리만족, 여가동반자,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만족스런 삶에는 성별, 고용형태, 일자리만족, 생활환경, 여가동반자, 신체활동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더욱이,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년 1인 가구 모두에서 가족과의 연락과 같은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문화적 요인이 취약하게 나타나는 만큼 취약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는 요리교실과 같은 건전한 커뮤니티가 확충되어야 함을 제시

3. 중장년층 1인 가구

○ 1인 가구 중에서도 중장년층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1인 가구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특히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중장년층의 이혼 및 자녀교육으로 인한 기러기 가족 등의 비동거 가족이 증가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

- 하지만, 그동안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많은 중장년층 남성이 실직과 함께 이혼이라는 상황에 빠졌음에도 활동기여서 불행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왔음

- 그나마 최근 들어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서서히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하나둘씩 도입되고는 있지만, 청년일자리나 노인복지와 비교해서는 현상에 대한 실태분석은 물론, 관련 복지제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소위 '복지사각지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와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 출생)가 사회적으로 문제점들이 표출되기 전에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박만자(2018)는 '중장년층의 자아 통합감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죽음에 대한 태도, 자아 통합감,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 이병호(2014)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참여 -다인가구와 비

교-' 에서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30~40대 중년층에게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

- 중년층 1인 가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가구유형에 따른 사회참여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동일한 사회 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집단을 고려할 때도 중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빈도는 다인가구와 비교할 경우 예외 없이 낮았음을 도출
- 중년층 1인 가구 안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획득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가 사회참여도가 높았음을 제시

- 차승은(2018)은 '중장년 일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떤 이유로 일인 가구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때 거주양상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각 시기별로 고찰
  - 각 연령집단별 일인 가구가 다른 일반가구와 비교해 볼 때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위축되어 있음을 고찰
  - 또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청년 1인 가구(20~39세) 중장년 1인 가구(40~59세), 노년(65~84세) 1인 가구 등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고찰
- 김시월(2015)은 '중·고령 1인 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에 대한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삶의 만족도 연구가 요구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
  - 중고령 1인 가구의 연간소비지출액 규모는 8,308천원이고, 그 비목 중 식비, 광열비, 보건의료비 비중이 높았으며, 소비패턴 유형으로 식비 중심형, 다양한 활동형, 주거비 중심형, 보건의료비 중심형 등으로 분류됨을 제시
  - 삶의 만족도 수준의 경우 인간관계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

은 반면, 경제, 건강, 여가 만족도 등은 보통 수준보다 낮으며, 경제, 건강, 여가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임을 고찰

- 박미현(2018)은 '장년층 1인 가구의 취업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장년층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일 경우, 공적연금을 보유할수록,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을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

- 강은나 외(2017)는 '도시지역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50세~69세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이 어떠한 구조이고, 여가유형이 1인 가구 중·고령자 우울수준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

  - 1인 가구 중·고령자 여가유형은 '일상적 홀로 운동형'이 26.8%, '관계적 운동·오락형'이 28.0%, '일상적 취미 활동형'이 23.3%, '여가 소홀형'이 21.4%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여가 소홀형에 비해 일상적 취미 활동형의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을 고찰

  -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미혼자에 비해 이혼·별거나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나 자녀배우자와의 만남의 빈도가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

- 강은나 외(2016)는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의 1인 가구 현황과 각 세대별 위험요인 등을 분석

- 고용, 건강 및 주거환경 등에서 세대 공통적으로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나타남을 제시하였으며, 각 세대별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과 강도의 차별성도 발견됨을 고찰

○ 더욱이 최근 들어서야 그나마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에 있어서 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고찰해보면, 성별에 따라 적어도 관점 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특히 사회적 고립에 의해 표출되는 고독사 문제에 있어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 서울복지재단(2016년) 자료에서 고독사 사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중장년층(45세~64세)이 62%를 차지하여 65세 이상 노인층 16.6%의 4배 가까이 되며, 그 중에서 남성이 84%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김종숙 외(2014)는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를 통해 1인 가구의 세대별, 성별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고, 1인 가구로 유입되는 가구의 특성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정책 동향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세대별, 성별 1인 가구 현황과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고용복지 연계 등 정부의 주요정책에서 근로연령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하여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1인 가구 내에서도 세대별로 성별로 상이한 고용 및 경제적 현황을 보임을 고찰

  - 최근 유입되는 장년기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남녀 모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인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것이며, 고용 역시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 장년기 1인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비취업 상태인 집단의 비중은 남성 40.0%, 여성 45.9%로 심각한 수준임을 고찰

- 권혁철 외(2017)는 4050세대 1인 남성 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성 1인 가구 중 4050세대가 2000년 25.4%에서, 2015년 39.3%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인지하여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일반적 특성에 있어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어떠한 삶의 유형을 만들어 가는지, 또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보 사이의 관계를 조명
  - 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탐색한 결과,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이 모두 낮았음을 확인
- 김혜련 외(2017)는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인구학적 정신건강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중년 남성 4명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특성을 고찰

제2절 해외사례

1. 일본 사례

1) 사회적 고립의 배경

○ 가족 구성이 다세대 동거형에서 핵가족형으로 크게 변화되면서 자녀들이 독립하는 가운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부부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 기간도 장기화 됨

- 또한, 퇴직한 상태라 사회적 연결고리가 희박해지고 신체적으로 종래와 같이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 지역 및 사회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됨.

○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소가족화 및 도시권의 지가 급등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임차 거주 및 맨션(한국의 아파트와 유사) 거주가 급증하게 됨

- 이러한 거주 형태는 근린 교류가 번거롭다는 도시 주민의 이해와 합치하지만, 그 이유로 근린 의식이 희박해지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로 연결되게 됨

○ 경제 불황의 지속으로 직장을 잃거나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혼하거나 결혼을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제적인 생활 기반이 취약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쉬움

○ 특히 대도시에서는 정보산업, 생활산업, 이동·교통 시스템, 사회보장 등의 발달로 건강할 때는 지역에서 타인과 관계를 갖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을 바라지 않는 독신자가 증가

- 지역사회와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일반적인 고령자는 저항

감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단카이 세대 이후의 세대는 소위 「회사 인간」으로서 일생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역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음

※ 단카이세대 : 戰後의 제 1차 베이비부머(1947~1949년 출생자)

- 고령자 1인 가구 중에는 질병 및 장해, 치매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에 있어도 지역과의 연결을 끊고 케어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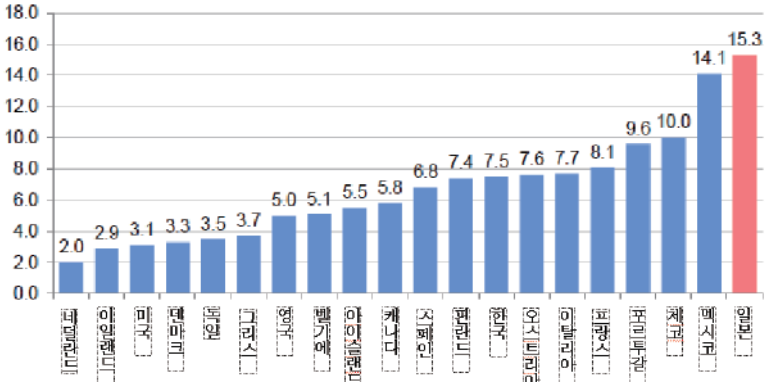
※ 후생노동성의 「고령자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촉진회의」의 보고서(2008. 3)에서 발췌

2) 사회적 고립의 현상

○ OECD 20개국 중에 일본의 사회적 고립도가 가장 높은 수준

- 1980년대부터 핵가족화, 개인주의화라는 사회현상 속에서 가족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 2-1] OECD 국가의 사회적 고립도 현황



주) 친구, 직장동료, 기타 사회단체의 사람들(협회, 스포츠클럽, 문화센터 등)의 교류가 「전혀 없다」 또는 「거의 없다」로 회답한 사람의 비율(합계)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05 edition, 2005, p8.

○ 고립사는 현재 연간 약 3만 명 수준이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닛세이 기초연구소 추계)

[표 2-1] 고립사 발생확률 및 통계

발견되기 까지의 일수		발생확률(%)	전국통계(명)
2일 이상	전체	2.95	26,821
	남성	3.62	16,617
	여성	2.24	10,205
4일 이상	전체	1.74	15,603
	남성	2.33	10,622
	여성	1.10	4,981

주) 발생확율은 동경도 23구에서의 고립사 발생 확률, 전국통계는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립사 추정 결과
(자료) 니셋이 기초연구소 조사연구 보고서(2011. 3)

○ 2015년 현재 1,842만 명이 혼자 살고 있으며(전 국민 7명중 1명, 14.5%), 지난 30년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혼자 사는 비율은 약 2.2배 증가

-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남성의 독신자 비율이 2015년에 18%로, 50대 남성 5명 중 1명이 혼자살고 있음.
-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의 장래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1,872만가구가 1인 가구로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가 될 전망.
- 2030년이 되면 1인 가구의 최다 연령계층은 "80세 이상"이 되며(334만명), 다음으로 많은 연령 계층이 "50대"(307만명)가 될 것으로 추산
  - 50대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미혼화의 진전으로, 50세 시점에서 평생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생애 미혼율)이

2015년에 남성 23%, 여성 14%에서 2030년에는 남성이 28%, 여성이 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80세 이상 고령자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2030년에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1947~49년생)가 모두 80세 이상이 되기 때문임.

  * みずほ情報総研, 「単身急増社会」を考える에 발췌(2017.3)

3) 사회적 고립의 해결을 위한 일본 사회의 추진 경과

○ 일본은 1994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을 넘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고령화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고령자 1인 가구 및 고령자 부부가구의 증가로 1990년대 후반부터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는 사례가 보임

○ 그 이후 2010년에 발생한 고령자의 소재 불명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의 발생과 그에 따른 고립사 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

- 지자체에서는 고립 방지의 주요 지원대상자로서 고령자 1인 가구 및 고령자 부부 가구에 중점을 둔 시책을 해 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해도 현행 규정에서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지역 자체적으로도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에 의한 방문 활동, 지구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역 복지활동, 자치회 등의 주민 자치조직에 의한 여러 가지 대응을 실시해 옴

- 2006년부터는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고령자의 사회적 고

립에 관한 실태파악 및 해결을 위한 대응이 강화됨

- 국가적으로도 고령자의 고립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왔으며, 2008년 3월 후생노동성의 「고령자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촉진회의」가 보고서로 작성됨.

○ 2012년에 후생노동성 주관으로 기존의 보호활동에서는 간과되기 쉬운 대상도 빠짐없이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안심생활창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지자체, 일반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고립 방지 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음.

4) 사회적 고립에 대한 조사 사례

(1) 東京都 하치오지市, 중고년세대(50~84세)와 사회적 고립 조사 결과

○ 중고년세대 조사 대상자 전원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 친한 사람의 수(0~1명)에서 본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은 8.6%
-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일수록, 의지할 상대가 없는 경향에 있음
-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는 보람,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경향에 있음
-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일수록 고독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경향에 있지만, 고립된 사람 중 약 45%는 고독감이 희박한 경향에 있음
- 서포트를 기대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사람은 고독감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경향이 있음
-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에 관련된 요인은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음

- 남성이 여성보다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이 많음
- 고연령이 될수록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경향은 볼 수 없지만, 50~54세, 80~84세 연령대에서는 고립발생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약간 높음
- 남성은 혼자 사는 사람, 배우자가 없는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음
- 남성은 현재 일하지 않는 사람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이 많음
- 여성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이 많음
- 남녀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이 많음
- 여성의 경우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이 많음
- 남녀 모두, 어떠한 단체 활동에 현재 참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참가하고 있는 사람보다 고립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남녀 모두, 이웃을 사귀지 않은 사람일수록 고립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녀 모두,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일수록 앞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남녀 모두,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웃에 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 남녀 모두,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역생활에 무관심 했거나,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여 반영시키는 장소라고

파악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조사 데이터에서 나타난 고립의 현상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은 기댈 사람이 없거나, 삶의 의식이 낮은 주관적 행복감이 낮다는 특징에서 삶 전체의 질 저하와 고립은 깊은 관련이 있음

- 고립되어 있는 사람 중에 고독을 느끼고 있지 않는 계층(약 45%)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립 경향에 있는 사람 =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고립된 사람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 즉 사회적 고립의 지원을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성별에 따라 고립의 발생률이나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남녀의 공통된 예방과 대처방안은 물론, 성별 요인에 맞는 보다 타당한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남성은 가족 특성에 의해 고립의 발생률이 다르다고 하는 여성에게는 볼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최근 1인 가구 비중은 높아지고, 남자의 생애 미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상황은 특히 남성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연구가 고립과 빈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상황이 가족형성의 기회를 제약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에 앞서 사교술이라는 개인의 성격에 의한 차이가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고령층이 될수록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경향은 분명하지 않아 「고령 = 고립」이라는 고정관념이 틀릴 수 있으나, 50~54세와

80~84세 연령대에서는 고립의 발생률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50대 초반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로 거주지 근처에서 친분을 쌓기가 어려운 점, 친족과 친분을 쌓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사회적 고립의 요인임에 따라 고립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중년세대의 생활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남성은 여성과 달리 현재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고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일을 가지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와의 중요한 접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남녀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출하기 쉬운 환경 조건이 사회와의 접점을 잃지 않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됨

- 고립 상태는 남녀모두 어떠한 단체 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고 평소에 이웃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발생하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 현저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단체 활동에 대한 참가나 일상적인 이웃 간 교류가 사회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고립된 사람 가운데 향후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약 42%, 이웃과의 교류는 당연하다는 사람은 약 43% 등의 결과를 보면, 현재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도 고립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 활동이나 이웃과의 접촉 등에 참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고립을 막고 보다 풍요로운 고령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역의 단체나 NPO, 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각기 가능한 일

에 노력하고, 이러한 주체들이 서로 보완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

- 실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사에 회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립군이 낮게 추측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한계에서도 고립의 현상을 파악하여 그 예방과 대책에 노력해야 함

※ 中高年世代と社会的孤立, 八王子市中高年世代アンケート調査에서 발췌

(2) 닛세이 기초연구소, 장수 시대의 고립 예방에 관한 종합 연구

○ 고립의「예방」관점에서 2013~14년에 걸쳐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4개 세대 총 6500명에 대한 WEB 여론조사를 통해 각 세대의「인연」상태를 확인

- 「인연」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量에 근거한 「사회적 고립 리스크 수준」을 설정

- 커뮤니케이션量은 인간관계의 종류(10종류)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깊이와 빈도에 의해 측정하여 고립 리스크 수준(5단계)을 측정

※ 커뮤니케이션 빈도 : 4개의 수단(대면·전화·편지·SNS)의 정보량

- 사회적 고립 리스크 수준별(5단계)로 세대별 속성의 특징을 도출하고 고립예방 관점을 명확히 함

○ 사회적 고립리스크 수준이 높은(Level 5) 4개의 세대별 속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됨

- 유토리 세대 (23-25세)

• 남성이 높음(여성을 10point이상 상회), 미혼이 높음, 부모와 동거

세대가 높음

•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무직, 자영업에 종사자가 높음

- 단카이 Jr 세대 (39-42세)

• 남성이 높음(여성을 10point이상 상회), 미혼이 높음, 1인 가구가 높음

• 비정규직이 높음

- 단카이 세대 (65-67세) : 1차 베이비부머 /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 (1955~63년생)

• 남성이 높음, 미혼·사별의 경우가 높음

• 1인 가구가 높음

- 75+ 세대 (75-79세)

• 성별의 차이가 없이 사별의 경우가 높음

• 1인 가구가 높음

○ 가족 형성, 교류 관계, 일하는 법에 관한「가치관」과「사회적 고립 리스크 수준」과의 관계에서 아래와 같은 고립 리스크가 높다고 추정함

- 「가족 형성」에서는, 부부의 의사를 중시하는 경향의 사람. 즉, 부부 의존이 강한 경우에 이혼 또는 사별 후에 고립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교류 관계」에서는 타인에게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비대면(인터넷)의 관계를 좋아하는 경향의 사람이 고립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일하는 법」에서는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며 보람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일 우선 경향이 높은 사람이 고립 리스크가 높다고 추정됨

○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한 객관적 평가와 고립 대상자에 의한 자기 평가를 근거로 사회적 고립 리스크의 평가 지표를 개발함

- 외부로부터 관찰 가능한 객관적 평가 : 속성·건강상태, 지리적 환경 등
- 고립자의 자기평가 : 인간관계 수, 이별·사별 등 가치관(가족 형성, 사람과의 관계, 일하는 법)의 유형에 따른 고립 위험수준과의 관계를 검증
- 커뮤니케이션量에 따라 「고립 위험수준(Risk level)」을 설정하여 고립 리스크 요인을 추정하고 고립 예방의 관점을 명확히 함

[표 2-2] 사회적 고립 지표별 예방 방법

구분			고립 리스크와 관계	예방 방법	
				개인	지역·사회
가족·인간관계	속성·상태	성별·결혼 여부	남성,미혼,사별	폭넓은 인간관계 구축	**고립 리스크 평가지표 활용**
		인간관계(양)	65세 / 5명		
		인간관계(종류)	65세 / 2개		
	가치관·지향성	가족형성	부부의 의사 중시 지향	자기분석과 의식·행동의 개선	라이프디자인 교육
		교류관계	간섭 회피지향 비대면 지향		
		일하는 방식	돈버는 수단 일 우선 지향		
	인생설계(의욕)		없음	인생설계 실시	
건강·거주환경	건강이상 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거주 이전 검토	
	건강이상 유		근린 세대와 거리가 멀다		

(3) 동경 신쥬쿠구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 조사

○ 동경의 신주쿠구는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회나 지역커뮤니티와 관계가 희박한 중장년기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3년간에 걸쳐 실시함(2013~2015년)

- 2013년 예비조사를 실시
- 2014년에는 장년기와 고령기의 독신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를 실시
- 2014년 8~9월에 35세 이상 1인 가구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회수율 35.6%)
  -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35~49세의 "장년 전기", 50~64세 나이의 "장년 후기", 65세 이상의 "고령기"로 나누고, 남녀별로 집계한 결과를 모두 6개 타입으로 비교 분석
  - 2014년 9~10월에 106명에 대해 히어링 조사를 실시
- 지금까지 지방행정은 중장년기 1인 가구에 관한 문제의식이 미미했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상당히 많은 장년기의 사람들이 비혼 또는 이혼의 결과 1인 가구화하는 시점에서 지역 내 실상이 심도 있게 조사되어 앞으로 행정서비스나 새로운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표2-3]은 남녀 연령을 3개로 구분하여 크로스 집계 분석과 통계 분석으로 얻어진 사회적 고립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별로 의식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임.

- 연령대별로 고립요인을 남녀별로 비교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남녀 차이가 커져 남성의 고립화 경향이 심화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남녀가 약 10% 이상 차이가 있던 고립 요인은 「장년 전기」에서는 "형제·자매가 없다/연락을 안한다" ,"상담할 상대가 없다", "이웃과의 교제가 없다"의 3개 항목이지만, 「장년 후기」에서는 이 외에 "임대 주택", "신년을 혼자 지낸다" 등 5개 항목으로 늘어남
- 고령기에서는 더 늘어나 10개 항목이 되고 약 20% 이상 차이가 있는 항목도 "자녀가 없다/연락을 안한다", "예적금이 전혀 없다", "생활보호", "임대 주택", "친구가 없다/너무 적다", "신년을 혼자 지낸다"등의 6개 항목에 달함

[표 2-3] 남녀·연령구분별로 본 사외적 고립 요인

No	요인		회답 구분 (상단이 고립요인)	장년 전기 (35~49세)		장년 후기 (50~64세)		고령기 (65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1	배우자 관계		미혼·이혼	96.0	94.0	88.3	80.6	70.4	51.6
			사별	0.0	1.8	2.9	11.2	22.6	46.1
2	자녀		없음·연락 없음	94.5	98.2	87.1	77.7	74.6	54.7
			있음	5.5	1.8	12.9	22.3	25.4	45.3
3	예적금		전혀 없음	-	-	-	-	48.2	21.3
			있음	-	-	-	-	51.8	78.7
4	수입원		생활보호 대상자	-	-	-	-	34.1	8.1
			공적연금	-	-	-	-	57.7	80.1
5	연수입	장년기	300만엔 ↓	25.6	29.7	40.7	54.3	-	-
			300~700만엔↓	52.0	54.4	36.3	35.9	-	-
			700만엔 ↑	22.4	15.8	23.1	9.8	-	-
		고령기	200만엔 ↓	-	-	-	-	34.1	8.1
			200만엔 ↑	-	-	-	-	57.7	80.1
6	취업 형태		비정규직·무직	24.2	34.3	52.4	50.0	14.2	26.9
			정규직 외	75.8	65.7	47.6	50.0	14.2	26.9
7	주택 형태		임대주택	76.0	67.1	70.2	55.6	69.1	41.7
			자가	24.0	32.9	29.8	44.4	30.9	58.3
8	건강 상태		좋지 않음	24.2	15.6	32.4	25.3	32.0	26.5
			좋음	75.8	84.4	67.6	74.7	68.0	73.5

9	**출신 지역**	동경권 이외	55.0	56.8	50.0	51.0	47.1	43.9
		동경권	45.0	43.2	50.0	49.0	52.9	56.1
10	**형제·자매**	없음/연락 없음	30.8	21.0	31.6	20.0	39.0	25.9
		있음	69.2	79.0	68.4	80.0	61.0	74.1
11	**친구**	없음/아주 적음	25.8	20.5	27.7	28.9	41.2	20.5
		있음	74.2	79.5	72.3	71.7	58.8	79.5
12	**편한 이야기 상대**	없음	9.3	2.4	11.4	7.1	16.0	3.2
		있음	90.7	97.6	88.6	92.9	84.0	96.8
13	**상담 상대**	없음	19.4	8.4	21.0	11.1	26.5	8.4
		있음	80.6	91.6	79.0	88.9	73.5	91.6
14	**신년을 지내는 방법**	홀로 지냄	25.2	20.6	43.3	22.7	55.8	30.2
		누군가와 함께	74.8	79.4	56.7	77.3	44.2	69.8
15	**이웃과의 교류**	전혀 없음	36.2	25.6	23.5	9.3	14.2	7.2
		있음	63.8	74.4	78.5	90.7	85.8	92.8

5)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 사례

(1) 주요 지원 사업

○ 현재의 행정서비스 지원이 고령자, 장애자 등의 대상자별로 중심되어 있어, 세대별로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본인 및 가족의 신청이 필요한 점 등으로 지원 및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 등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

○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

- 지역지킴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 지역 실정 및 특성에 따라 민생위원, 자치회,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NPO법인, 지역케어센터 등이 연계해서 실시하는 살롱(사교모임)운영 및 지킴이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 조성, 지역 내 지킴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 지역복지·교류거점 모델사업

- 지역복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고령자, 장애자, 육아세대 등 광범위한 시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살롱(사교모임) 등의 거점을 정비하기 위해 NPO법인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 정비 비용을 지원

- 지역케어플라자의 정비 및 운영사업

  - 시민 누구라도 생활에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복지보건의 거점으로서 지역 활동 교류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케어플라자의 정비·운영을 실시

○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지킴이 추진사업

  - 주민 등록된 75새 이상의 고령자 1인가구의 개인정보를 민생위원 및 지역포괄센터에 제공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파악된 상황에 맞추어 상담지원 및 지킴이 활동 등으로 연결함

- 고령자용 시영주택 등에 생활원조 담당자 파견사업

  - 실버하우징 및 시니어 Live-in(고령자용 시영주택)의 입주자 및 고령자 대상 우량 임대주택의 일부 입주자를 대상으로 「생활원조 담당자」를 파견하여 생활에 관한 상담 및 안부확인을 실시하며, 긴급통보시스템을 운용하여 긴급 시에 대응함

- 민간에 의한 고령자 지킴이 추진사업 (식사 서비스·장보기 지원)

  - 개호필요 고령자 등의 재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중증 개호필요자 등에 대해서 방문에 의한 식사제공과 안부확인을 위탁에 의해 실시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지킴이 활동에 부가하여 장보기 대행서비스 등을 실시함

○ 주로 고령자,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 재해 시 원호필요 자 지원사업
  - 재해 시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고령자 및 장애자 등에 대해서 안부 확인 등의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부터 지역의 체제 구축을 추진
- 안심 전화
  - 고령자 1인 가구 및 장애자가 부상 및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발신 버튼을 눌러 근처의 협력자 및 소방서에 통보될 수 있는 긴급통화 장치를 설치
- 지역생활안심센터 운영사업 (권리옹호사업)
  -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일상생활에 불안해하는 고령자 및 장애자가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옹호에 관한 상담 및 계약에 의한 정기방문, 금전관리서비스, 재산관련서류 등 보관서비스 등을 실시
- 장애자 후견인 지원제도
  - 장애자가 부모 사망 후에도 지역에서 안심하게 생활하도록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장애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장애자 본인을 지켜 주고 있으며, 정기 방문을 통해 응급 시에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 중
- 장애자 상담 지원사업
  - 장애자가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지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상담지원기관으로 정보제공, 상담 대응, 복지 서비스의 이용 원조 등을 실시

-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 고령자 1인 가구 및 장애자가 쓰레기 버리기가 어려운 경우 현관문에 내 놓으면 수집을 함. 일정기간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으면 인터폰을 통한 안부확인을 하거나 관계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대응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활동

- 민생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정기방문 활동
  - 고령자 1인 가구 및 고령자 세대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민생위원이 생활 등의 상담 및 지침이 활동, 말 걸기, 안부확인 등을 실시
- 식사 배달 및 회식 서비스
  - 고령자 및 장애자 세대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원봉사단체 등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배달함. 배달을 통해 안부확인도 겸하고 방문 시에 문제가 있을 때 지역케어플라자 또는 민생위원 등에게 연락을 함. 또한 자치회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외식회 등을 개최하는 회식 서비스도 개최
- 살롱(사교모임) 활동
  - 지역주민의 교류, 갈 곳 만들기 및 자택 등에서 은둔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회, 민생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정기적 또는 상설로 개최
- 노인클럽 활동
  - 건강, 우애, 봉사의 3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주로 자치회 단위로 노인 클럽이 결성되어,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끼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즐거운 생활을 실현하도록 함

[표 2-4]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
全 세대 대상	• 지역 지킴이 네트웍 구축 지원사업 • 지역복지, 교류 거점 모델 사업 • 지역 케어 플라자 정비 및 운영사업
주로 고령자 대상	•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지킴이 추진 사업 • 고령자용 시영주택 등에 생활 원조 담당자 파견 사업 • 민간에 의한 고령자 지킴이 추진 사업
주로 고령자· 장해자 대상	• 재해시 요원호자 지원 사업 • 안심 전화 사업 • 지역 생활안심 센터 운영사업(권리옹호 사업) • 장해자 후견인 지원 사업 •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지역주민이 주체	• 민생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정기방문 활동 • 식사 배달 및 회식 서비스 • 살롱(사교 모임) 활동 • 노인클럽 활동

(2) 동경도 아다치구 「고립제로 프로젝트 추진」활동 사례

○ 고립제로 프로젝트 추진활동은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돌봄이나 말 걸기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활동 등의 사회참가를 유도하는 일련의 활동임

○ 2013년 1월부터「고립제로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내용을 구 조례에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음

- 사회적 고립의 정의
-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70세 이상 1인 가구, 75세 이상 고령자만의 가구에 대해 대상 관련기관(자치회, 민생위원, 경찰서 등)에 주민정보를 제공
- 자치회, 미생위원 등에 의한 실태조사 실시
-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 내용과 구청·구민·관계기관·사업자의 역할을 정의

○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총 5단계의 활동 내용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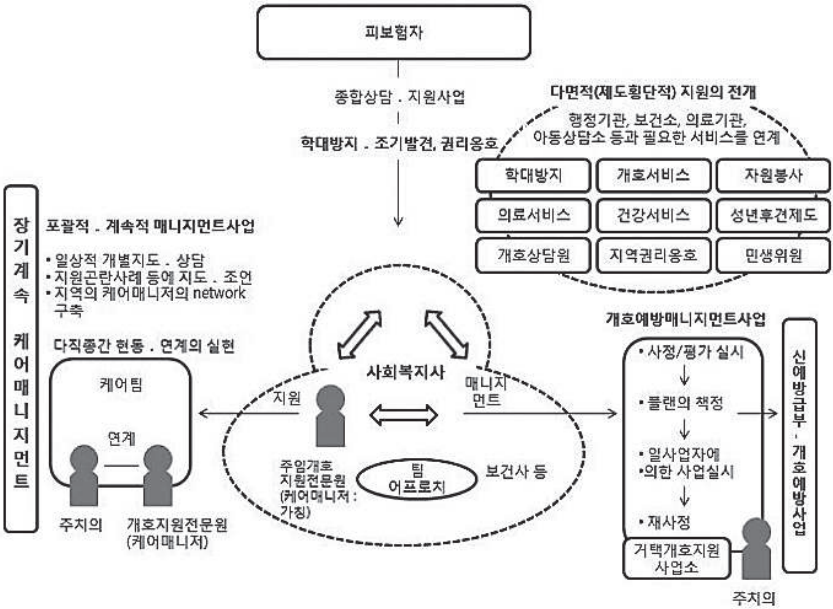
- [1단계] 알기 단계

- 실태조사를 실시, 현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세대의 사회적 고립 대책에 대해서도 준비 중에 있음
- 지역자치회, 민생위원 등에 의한 1차 조사 실시 (2018년 3월말)
- 구내 305개 단체에서 2차 조사 실시 (2019년 3월말)

- [2단계] 연결 단계

- 조사 결과, 잡담 상대, 곤란한 일의 상담 상대가 없는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이 「인연의 안심협력원」을 소개
- 지역포괄지원센터 :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적 「고령자 종합상담창구」로 복지·개호 서비스의 소개 및 신청 수속 등에 관한 상담을 복지 및 의료 전문가가 대응함
- 인연의 안심협력원 : 지역 내 고립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일상적인 지킴이·말 걸기 활동 등을 하면서 사회적인 고립상태의 해소에 노력하는 자원봉사자

[그림 2-2]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흐름도



- [3단계] 다가가는 단계

- 「인연의 안심협력원」이 정기적으로 잡담하러 방문하거나 지킴이 활동 및 말 걸기 등을 실시하며, 방문 시에는 「인연 만들기 응원상품」을 제공하여 활동을 지원 (인연의 안심협력원 등록자 수 : 1,076명 (2019년 3월말)

- [4단계] 갈 곳 만들기 단계

- 「인연의 안심협력원」등이 지역의 이벤트 및 교실, 싸롱(모임)활동 등을 권유

- [5단계] 사회참가 단계

- 대상자가 스스로 지역 활동 및 지역사회에 참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삶의 의욕을 갖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함

○ 지역포괄지원센터, 인연의 안심협력원, 협력기관이 제휴해 고령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함으로써,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인연의 안심 네트워크」를 구축함

- 인연의 협력기관 : 통상의 업무 중에 지역 내 고립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의 이변을 알게 되었을 때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연락해 주는 협력기관으로 목욕탕, 마을자치회, 우체국, 신문배달점, 배식서비스사업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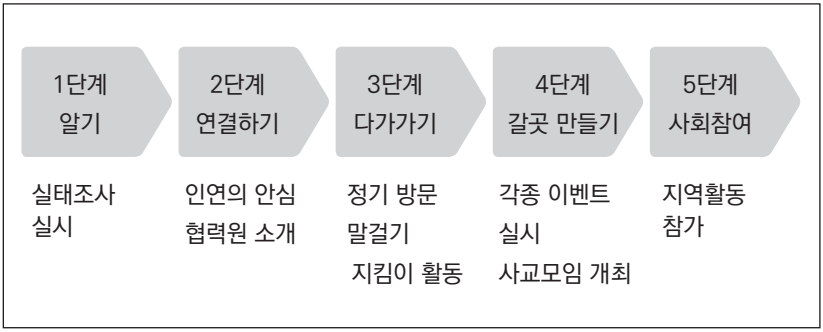
- 인연의 안심협력기관 등록 단체 수 : 733개 단체 (2019년 3월말)

○ 인연의 안심협력원, 인연의 안심협력기관, 민생위원 등 관계자가 모여, 복지 계발·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네트워크 만들기, 지역 상황파악, 활동 방향성, 지역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례회의인 「인연의 안심 네트워크 연락회」를 운영하고 있음.

※ 구내 25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개별적으로 년 6회 개최

○ 인연의 안심협력원 및 협력기관의 활동이나, 고립제로 프로젝트 추진 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분기별로 「아다치 인연 만들기 통신」, 매년 「활동보고 사례집」을 발행하고 있음.

[그림 2-3]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 단계



2. 영국 사례

1)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경과

○ 80년대 마거릿 대처 총리는 사회보장혜택 삭감 등『작은 정부』노선 개혁을 진행함

- 취업 의욕이 낮은 빈곤자의 자세를 문제로 삼아, “분하면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개념의 개혁 결과 영국에서는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라는 문제가 발생

※ 사회적 배제 : 실업, 저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택사정, 높은 범죄 발생율, 건강 상태의 악화, 가족붕괴와 같은 상호관련 문제가 조합된 상태에 놓여있는 개인 또는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저소득, 기술 부족, 무직의 악순환에 빠졌으며, 가족이나 지역이 붕괴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음

○ 90년대 후반에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1997년 12월 「사회적 배제 대책실」을 신설

- 관민의 전문가로 구성 조직이 수상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복합적인 사회적 베체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검토

- 저소득층의 증대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에서 취로」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New Deal 정책을 실시, 6개월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18~24세) 실업자에게 Personao Advisordp 의한 취업 지원을 실시

- 관민 연대방식으로 전문 어드바이저를 배치, 가장 빈곤한 지역에 자금을 집중시켜 실업, 건강, 범죄, 교육의 개선, 커뮤니티의 역량 구축, 인종적인 불이익의 개선, 비즈니스를 장려하는 「커뮤니티 대책(New Deal for Communities)」을 실시

- 1998년, 정부와 봉사기관의 대표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파트너쉽을 구축(Home Office/Working Group on Government Relations)

2) 최근의 동향

○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공적인 지원이 줄어들면서 빈곤과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

- 각종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구 약 6500만명의 영국에서는 900만명 이상이 고독을 느끼고, 65세 이상의 중 360만명이 “텔레비전이 주요 친구”라는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임

-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고, 고독

에 의한 컨디션 불량으로 종업원이 결근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로 고용주는 년 25억파운드(약 3조 6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 2018.1월 메이 총리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은 슬픈 현실”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고독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신설

- 그러나, 고독에 대한 대책을 내세우면서 재정 긴축 정책으로 지방의 유아지원시설, DV(가정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도서관 등을 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이 고독을 경감해 온 역할을 경시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의도가 빈축을 받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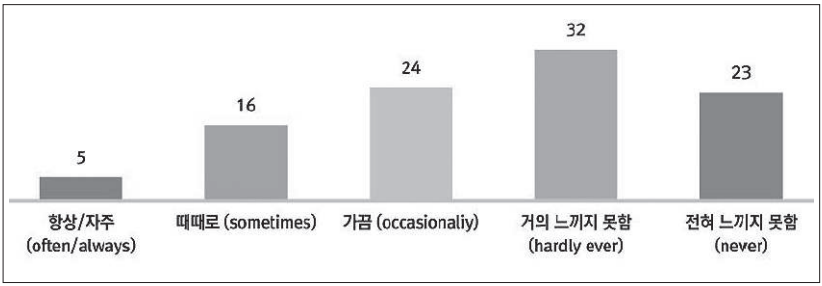
- 고독담당 장관은 국민의 고독 문제에 전념해 온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이 2016년 국민투표 중에 의해 피살된 이후 설립된 조콕스 고독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의 정책 제안을 실행하기 시작

- 사회적 고립(isolation)과 외로움(loneliness)에 대한 ① 객관적인 실태 조사와 척도 구축 ② 재원마련을 위한 펀드조성 ③ 범 정부의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2018. 4월 고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 함

- 16세 이상 인구 중 45%가 고독을 느끼고 있으며, 45% 중에서 5%가 외로움을 항상/자주 느끼고 있으며, 16%는 때때로 느끼고 있다고 답해 21%가 외로움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가끔 고독을 느낀다는 응답은 24%, 거의 느끼지 않거나(32%) 전혀 느끼지 않는다(23%)는 응답은 55% 였음

[그림 2-4] 영국성인 중 외로움 체감율(%)



출처 : Community Life Survey(2016.8~2017.3)

○ 2018. 6월에는 지역에서 고독 리스크가 높은 노인과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NPO 등을 대상으로 총 2000만 파운드(약 300억원)을 보조하는 등의 실행과 고독의 예방과 경감에 유효했던 활동, 효과가 없었던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10월 15일 고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 A connected society :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laying thr foundations for change (연결된 사회 :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 변화의 기반 마련)을 발표함

- 대상은 영국지역에 한정하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와도 협력하며, 상호 정책을 참고함
- 각 주체별의 역할을 설정 : 정부, 지자체, 보건 및 공공서비스 기관, 기업, 자원봉사, 지역사회, 가족, 개인의 역할을 설정
- 고독을 항상/자주 느끼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을 정부 역할의 핵심 역할로 규정하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척도 측정을 통해 고독 현상의 감소를 추진하는 것

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독 원인에 대한 테이터 수집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 예방을 위한 방법에 중점을 둘 것임

3)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

○ 영국 우스터셔 주정부는 우스터셔 주 내 약 12,000명의 장년층이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재결합을 도울 경우 약 3천 6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 장년층의 사회적 단절을 감소시키기 위한 SIB 사업을 개시함.

- 수행기관 : 에이지 유케이(Age UK; 노인 복지를 위한 자선재단)
-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 민간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성과를 구매하는 방식

○ 재결합(Reconnection) SIB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우스터셔州의 50세 이상의 장년층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선발 과정에서 대상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CLA지수 (Revise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ale)가 사용
- 선발된 대상자들은 모두 R-UCLA 고독지수가 8에서 12점 사이로 측정된 고위험군으로,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음.
  - R-UCLA지수 : 1978년 처음 소개된 이후로 다양한 연령대의 고독감을 수치화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지수

○ 이러한 SIB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위

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경험도 해 볼 수 있다는 데 있음.

- 사업의 첫 단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친구맺기, 그룹 활동, 사별증후군 극복과 같은 활동을 수행됨
-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낸 참가자들은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보길 권유받고, 이를 통해 참가자들 간에 더 깊은 유대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됨

○ 2015년 여름에 시작된 이 SIB사업은 2019년 말까지 약 4~5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성과는 R-UCLA지수의 감소여부로 평가

- 6개월 후 그리고 18개월 후 두 번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고, R-UCLA 지수가 목표만큼 감소할 경우 각각 참가자당 460파운드, 240파운드의 성과금이 지급

○ 2016년 3월에 실시된 첫 번째 사업의 평가결과 등은 비공개로 부쳐졌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참가자와 지원스태프, 자원봉사자들 및 수행기관 파트너의 인터뷰를 담은 중간 보고를 통해 사업의 경과를 추정

-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본 인터뷰에서 참가자의 전원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였다고 답한 부분으로, 이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느낀다고 응답함.
- 복수의 참가자들은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신체도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소원했던 주변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두 번째 사업평가는 2019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스터셔 州정부는 본 프로그램이 SIB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정규 서비스로 전환·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음

3. 미국 사례

1) 사회적 고립의 현상

○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학교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교수는 같은 대학 동료교수이자 아내인 앤 케이스(Anne Case)와 함께 지난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중장년층(만 45세~ 54세) 인구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함.

- 백인 중장년층 사망률 급증 현상의 1차적 원인으로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자살률 증가를 꼽았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들이 겪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인간 관계 및 지역사회내 유대관계 약화가 불러온 사회 전반의 고립 현상 확대를 지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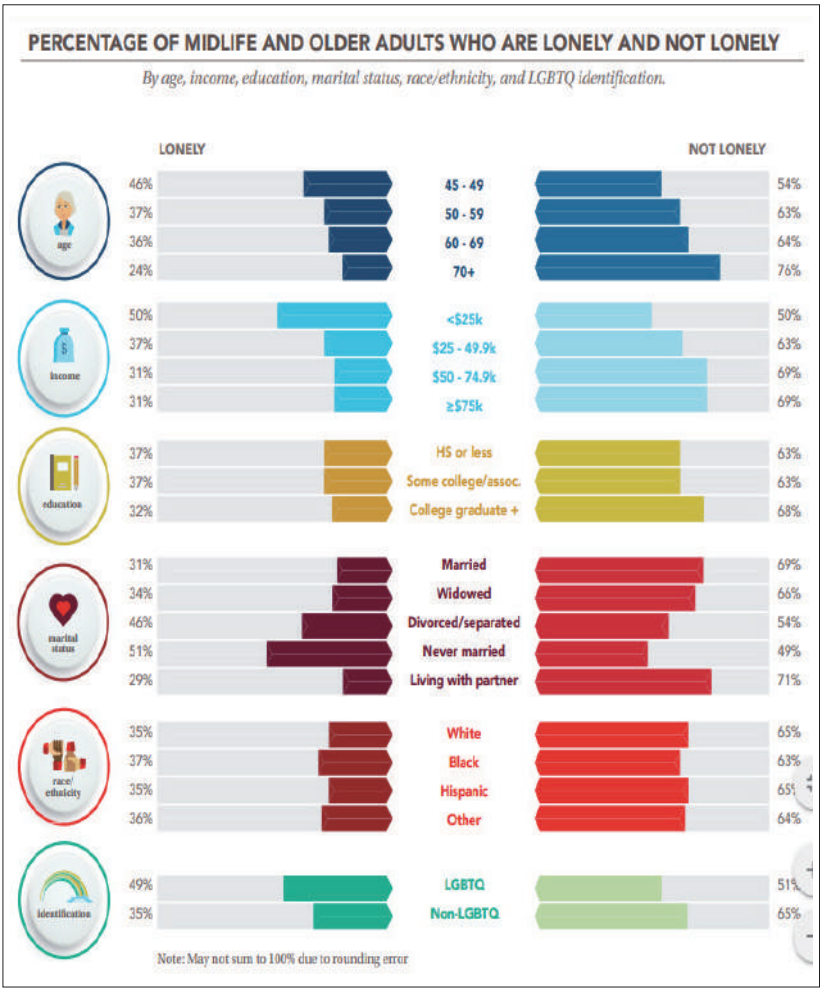
- 해당 연구는 사회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특정 집단의 건강상태 악화와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미국의 위기를 암시하기도 함.

○ 미국의 은퇴자를 위한 비영리단체 AARP 재단은 2010년부터 중년과 노인들의 외로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45세 이상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함

- 45세 이상 성인 가운데 3명 중 1명은 외롭다고 응답

- 전체적으로 45세 이상 미국 성인의 3분의 1 이상(35%)이 외롭다는 수치는 2010년에 실시된 이전의 외로움 연구와는 변함이 없지만, 약 500만 명의 중년층과 노인들은 인구 중 이 연령층의 증가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
- 2010년에는 45세 이상 성인 약 4천 260만명이 외로웠으며, 2018년에는 약 4천 78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4명(41%)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6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의 3분의 1(31%)은 1년 이상 외로움을 느꼈으며, 26%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 이 연구는 중년층과 연간 25,000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노인들 사이에서 2명 중 1명이 외롭기 쉽다는 것을 발견
  - 현재, 360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있으며 그 중, 1천만 명 이상이 이미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것은 상당수의 연약한 노인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림 2-5] 외로움에 대한 45+ 성인의 비율
~ 연령별, 소득, 교육, 혼인 여부, 인종/민족, 性소수자 여부.



출처 : AARP Foundation survey「Loneliness and Social Connections: A National Survey of Adults 45 and Olde」r

2)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지원 사례

○ 미국은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지원은 주로 노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워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인 식사배달서비스(Meals on wheels), 자원봉사자에 위한 안부확인 서비스(You are not alone Program), 공동거주를 위한 주택 지원서비스(Single Room Occupancy, Micro-Housing, Housing Choice Voucher)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식사배달서비스는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집으로 배달하거나, 노인센터 및 지역사회 시설 등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교제 기회 제공을 하며, 배달시 안전 확인을 통해 비상 사태시 신속히 대응을 하는 서비스로 미국 노인법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임

- 안부확인 서비스(You are not alone Program)는 은퇴한 보안관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고령 1인가구 및 장애자의 안전 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며, 민간회사 서비스(유료)로 매일 전화 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도 있음

-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소형 주택 지원, 저소득자를 위한 임차인 지원 바처(임대료 보조) 등의 지원사업이 운영중임

○ Palo Alto Medical Foundation은 단절된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해 세대 간 서비스 교환을 제공하는 linkAges라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함

- Palo Alto Medical Foundation1은 5개 이상의 도시에 의료 사무실을 둔 비영리 의료 기관으로 캘리포니아 최고의 의료 그룹 중 하나로 평가

- 플랫폼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각자 필요한 것에 대한 글을(예을 들어 대신 개를 산책시킬 사람, 또는 함께 의사를 찾아갈 사람들을

찾는다는) 올리고. 이러한 필요 사항을 대신 들어줄 사람은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

- 그 후에, 서로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기도 함으로써.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꾸준히 증가시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함.

○ 미국의 은퇴자를 위한 비영리단체 AARP 재단은 8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립 주의 유행병에 대한 대응으로 '함께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치자'는 의미의 커넥트투어펙트(Connect2Affect) 홈페이지를 2018년 오픈함

- 사회적 고립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촉구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표

- 건강의 최대의 적인 「외로움 퇴치 캠페인」을 위해 사이트 방문자가 「셀프평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각자의 사회적 연결 상태(매우 잘 연결, 위험한 수준 등)를 파악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리소스를 제공(R-UCLA지수 활용)하며 상태를 호전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텍스트 알림 메시지를 신청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

- 노인주택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정보(커뮤니티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2-6] 커넥트투어펙트의 외로움 자가 진단표「How Connected Are You?」

How Connected Are You?

Connecting with others is something that improves our quality of life. Complete the self-assessment below and we'll help you understand how connected you are and provide you with helpful resources.

All questions are required.

1. I live alone. ◯ Yes ◯ No

① 나는 혼자 산다. [Yes / No]
②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족을 보거나 이야기한다.
③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친구들을 만나 대화한다.
④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일상적인 일 (식사 준비, 교통편 제공, 장보기 등 을 대일 돌보거나 지원한다.
⑤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차편이나 교통편이 있다.
⑥ 도움없이 집을 떠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⑦ 주변 사람이나 세상에 의미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⑧ 대주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합창단, 주민 단체, 문화 공연, 단체 식사, 운동 등 조직화된 그룹에 참석한다.
⑨ 나는 종종 동반자가 없다고 느낀다.
⑩ 나는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⑪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⑫ 내게 일어난 좋은 소식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겨줄 누군가를 알고 있다.
⑬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은퇴 등과 같은 큰 변화를 겪었다.

4. 해외사례로 본 시사점

○ 지금까지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현상과 대응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으로 고립(외로움, 고독)에 이르는 요인이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대응 방법도 다양할 수 밖에 없음을 파악

○ 사례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주로 고령자 또는 장애자 등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 의식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응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음.

○ 특히 대상자 발굴을 위해 각 지역에서 지속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추적하고 그 과제를 분석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또한, 고립 대상자가 자원봉사자가 되어 사회 참여를 할 경우 그 효과가 높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도 「고립 대상자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인터넷은 사회적 고립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립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어 단절된 유대감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NPO 법인 등이 인터넷을 활용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임

○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지역) 차원의 지역별 전문 민간 지원기구(NPO 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과 민간을 융복합적으로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제3장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성

제1절 실증분석

1. 조사 개요

1) 한국복지패널 개요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함께 조사한 2018년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16)]

-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필두로 2018년 현재 제13차까지 조사를 수행 및 완료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분야 패널을 구축중

16)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s://www.koweps.re.kr:442) 및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조사대상에 제주도와 농어가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전국을 대표하고 있고, 저소득가구에서 표본의 절반정도를 표집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적합
- 조사항목으로는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근로활동, 경제상황, 가구 여건(복지욕구),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생활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복지·사회·정치 문제 인식 등 상당히 포괄적
- 이 자료상에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경제적 만족과 관련한 지표, 건강만족도 등 신체적 문제와 관련한 지표, 행복지수 등 심리적 안정과 관련한 지표, 기타 주거환경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직업만족도,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등,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중장년층 1인 남성 가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 상당수 포함

○ 한국복지패널 제13차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음[17)]

- 조사인원은 10개 팀 총 50명이고, 조사지역은 17개 시도 및 209개 시군구를 조사하였으며, 일정은 2018년 2월 24일(토) ~ 5월28일(일)까지 총93일간 조사하였음
- 13차 조차대상 가구는 원표본 가구 4,398가구, 2~12차 조사기간 중 분가에 의한 추가가구 683가구, 7차부터 신규패널로 합류한 1,800가구와 10차에서 소실된 12가구가 포함되었고, 13차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가구 116가구를 포함하여 총 조사대상 가구는 6,709가구

17)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13차 조사 완료된 총 표본가구는 6,474가구로, 13차 조사대상 대비 조사완료율은 96.5%

2)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 방법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사별(기타 포함), 이혼 및 별거(유배우자 포함), 미혼 등[18]의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로 표본의 전체 크기는 111명[19]

- 비교집단으로는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 140명, 노년층 1인 가구(남성 및 여성)는 1,296명
- 통계 결과분석은 미니탭(Minitab) ver.19 (30일 데모 한정판) 통계프로그램으로 수행
-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수행하고 비교집단과 χ^2 검증과 ANOVA 검증
- 또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도 실시
- 더불어,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지표 및 고독사의 선행지표로서 자살에 대한 생각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

18) 한국복지패널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혼인상태 구분은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 기타(사망 등)이 있는데, 이중 이혼과 별거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관점에서 병합하였고, 유배우는 별거와 유사개념으로 간주하였으며, 기타는 사별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19)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총 데이터 수가 111명으로 혼인상태별 세분화 및 범위조정 요청(서울시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센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세분화시 통계적 분석이 곤란하여, 분석대상의 범위는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로 하되 세부 혼인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는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겠음

3) 비교분석 항목 선정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삶의 질의 가장 기본적 지표로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산정

- 전반적 만족도는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만족도로서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 세부적으로 경제적 문제, 신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 사회적 문제, 기타 환경적 문제 등으로 구성(김연옥, 2016; 김미령 2006)

(1) 경제적 문제

○ 경제적 문제는 총 6개 요인으로 분석함

- 월소득(경상소득), 재산(재산총계), 부채(부채총계)는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
- 경제활동 여부는 참여 상태를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없음'(=0), 근로자 및 고용주, 자영업자는 '있음'(=1)으로 변환하고, '없음'을 기준으로 더미화
- 근로능력정도는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단순근로미약자, 근로능력 없음으로 측정하여 4점에서 1점가지 점수를 부여하고 척도화
- 가족의 수입만족도는 '매우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2) 신체적 문제

○ 신체적 문제는 총 3개 요인으로 분석함

- 건강상태는 '건강이 아주 않 좋다'(=1)에서 '아주 건강하다'(=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 건강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 만성질환 유무는 '없음'(=0)을 기준으로 더미화

(3) 정신적 문제

○ 정신적 문제는 중감 등, 총 3개 요인으로 분석

- 주관적 행복감은 행복지수로서 '최악의 상태'(=0)로부터 '최선의 상태'(=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 형태(코딩상 변수 설명은 삶의 사다리)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칸(구간)을 10점 척도로 측정
- 우울에 대한 인식은 CESD-11(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11개 항목으로 측정하되 각 항목별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1주일에 5일 이상)'(=3점)까지 측정하여 총 0점에서 33점까지 척도화[20)]
  - 계산값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은 Rosenberg Self Esteem Scales의 10개 항목으로 측정하되 각 항목별 '극히 드물다'(=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 측정하여 총 0점에서 30점까지 척도화[21)]

20, 21) 역학연구 우울척도(CESD)는 Radloff 등이 1977년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한 척도로서 문항이 간결하고 증상의 존재 기간을 기준으로 정도를 측정하여 외국 및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역학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이산 외, 2016).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문항으로 우울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11개 항목을 사용

•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사회적 문제

○ 사회적 문제는 총 4개 요인으로 분석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 가족관계 만족도도 '매우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 직업만족도도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 여가생활 만족도도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5) 기타, 환경적 문제

○ 기타, 환경적 문제는 총 4개 요인으로 분석

- 5대 권역별 지역구분을 '서울 및 광역시'(=1)와 '시, 군, 도농복합군'(=0)으로 구분하고 '시, 군, 도농복합군'을 기준으로 더미화[22)]
- 주거환경 만족도를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5단계로 구분한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

22) 개인주의의 진행이 다양한 인적, 물적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도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 현황을 분석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도시 거주 여부를 포함 (김연옥, 2016)

2. 기술통계 및 비교분석

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한국복지패널 제13차 자료를 기반으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음

○ 주된 분석대상인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1]에 나타나 있음

- 전체 대상자수는 111명이고 이중 사별이 7명(6.3%), 이혼 및 별거가 59명(53.2%), 미혼은 45명(40.5%)
  - 이는 65세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사별의 비중이 57.5%인 점과 대조적이며,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아직까지 여성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 하지만,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사별의 비중이 41.4%라는 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기에 사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 참고로 30~49세 남성 1인인 가구나 29세 이하의 1인 가구의 경우 압도적으로 미혼의 비중이 높음
- 따라서, 남성 1인 가구의 주된 원인이 청년층에서는 미혼, 중장년층에서는 이혼 및 별거, 노년층에서는 사별으로 점차 이동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분석된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및 광역시가 49.5%, 일반 시 및 군·도농 지역이 50.5%

로서 전국적으로 쏠림 현상 없이 거주하고 있음

- 하지만, 복지패널 전체 표본가구의 지역 분포가 서울 14.0%, 광역시 27.5%, 일반시 40.1%, 군·도농 지역이 18.4%와 비교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음도 살펴볼 수 있음

○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82.9%로 압도적으로 높음

- 기타로 전문대 5.4%, 대졸 9.9%, 대학원 1.8%

○ 년 소득수준은 1,200만(월 100만) 미만자가 30.6%, 1,200~2,400만(월 100~200만) 미만이 29.7%, 2,400~3,600만(월 200~300만) 미만이 27.0%이며 3,600만(월300만)이상자는 12.6%에 불과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년 평균 소득은 2,242만으로 월 200만원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

- 이는 제13차 복지패널 전체가구의 년소득 5,417만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불과한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다인 가구 대비 매우 열악한 상태

  • 따라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도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3-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내용 (혼인상태)			
		계	사별*	이혼·별거**	미혼
1인 남성	소계	522 (100.0%)	160 (30.7%)	180 (34.5%)	182 (34.9%)
	65세 이상	266 (100.0%)	153 (57.5%)	99 (37.2%)	14 (5.3%)
	중장년층(50~64)	111 (100.0%)	7 (6.3%)	59 (53.2%)	45 (40.5%)
	30~49세	115 (100.0%)	-	22 (19.1%)	93 (80.9%)
	29세 이하	30 (100.0%)	-	-	30 (100.0%)
비교	중장년 1인 여성	140 (100.0%)	58 (41.4%)	67 (47.9%)	15 (10.7%)
	1인 노인가구	1,562 (100.0%)	1,326 (84.9%)	209 (13.4%)	27 (1.7%)
지역별	소계	111	7	59	45
	서울	26 (23.4%)	1	8	17
	광역시	29 (26.1%)	1	19	9
	시	38 (34.2%)	2	25	11
	군·도농	18 (16.2%)	3	7	8
교육 수준	소계	111	7	59	45
	고졸이하	92 (82.9%)	5	51	36
	전문대	6 (5.4%)		2	4

구분		내용 (혼인상태)			
		계	사별*	이혼·별거**	미혼
교육 수준	대졸	11 (9.9%)	1	5	5
	대학원	2 (1.8%)	1	1	-
년 소득 수준	소계	111	7	59	45
	1200만 이하	34 (30.6%)	2	12	20
	1200~2400만	33 (29.7%)	2	17	14
	2400~3600만	30 (27.0%)	3	19	8
	3600~4800만	8 (7.2%)		7	1
	4800~6000만	3 (2.7%)		2	1
	6000만 이상	3 (2.7%)		2	1

주1) * : 사별은 기타(사망 등)을 포함
주2) ** : 이혼·별거에는 유배우자도 포함

2)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실태 특성 비교 분석

○ [표 3-2]에서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와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층 1인가구 등 세 집단의 생활실태에 대한 특성을 비교하였음

- 데이터가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ANOVA 검증

- 데이터가 이산형 변수에 대해서는 χ^2 연관성 검증 실시

○ 전반적 만족도는 중장년층 남성이 3.11, 중장년층 여성이 3.39, 노인층이 3.41로서 대체로 중장년층의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유의수준p〈 0.001)

- 그래프 분석상 중장년층 남성 대비 중장년층 여성 및 노인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장년층 여성 대비 노인층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임

○ 경제적 문제 관련 6개 지표중 부채는 집단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고, 재산(유의 수준 p〈0.05)과 기타 4개 항목(유의수준 p〈0.001)은 유의미한 결과 도출되었으며, 대체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중장년층 여성이나 노인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

- 근로능력정도는 중장년층 여성이 3.76, 중장년층 남성 3.51, 노인층 3.11로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중장년층 여성의 근로의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어짐

- 경제활동여부는 중장년층 여성이 56.4%, 중장년층 남성이 54.1%, 노인층이 26%로 집계되어 중장년층 여성 및 남성이 노인층보다는 경제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년 소득은 중장년층 남성이 2,242만, 중장년층 여성이 1,894만, 노인층이 1,223만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 재산은 중장년층 여성이 8,746만, 중장년층 남성이 6,069만, 노인층이 4,908만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 가족수입만족도는 중장년층 남성이 2.55, 중장년층 여성이 2.85, 노인층이 2.93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 이는 노년기에 갈수록 가족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중장년층 남성이 중장년층 여성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1인 가구임에도 가장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해석 할 수 있음

○ 신체적 문제 관련 3개 항목은 모두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건강이 가장 좋은 수준으로서 유의미한 결과 도출(유의수준 $p<0.001$)

- 건강상태 지표는 중장년층 남성이 3.32, 중장년층 여성 3.22, 노인층 2.78
- 건강만족도도 중장년층 남성이 3.01, 중장년층 여성 2.96, 노인층 2.70
- 만성질환 유무는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40.5%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중장년층 여성 1인가구는 22.1%, 노인층 가구는 7.9%에 불과

-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냄

○ 정신적 문제 관련 3개 항목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보다는 열악한 것으로 분석

- 주관적 행복감은 중장년층 남성이 6.02로서 제일 낮았음
- 우울증은 중장년층 남성이 20.80으로 중장년층 여성 20.64 대비 소폭 높았으며 노년층의 21.56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세 집단 모두 절대적 수치로는 높은 편[23)]
- 자아존중감은 중장년층 남성이 22.33으로 중장년층 여성 22.44 대비 소폭 낮았으나 노년층의 21.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23) 우울증 계산 총점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음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 사회적 문제 관련 4개 항목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열악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중장년층 남성이 3.30으로 중장년층 여성 3.60, 노인층 3.59 대비 낮은 수준
- 가족관계 만족도도 중장년층 남성 3.26, 중장년층 여성 3.68, 노인층 3.67 대비 낮은 수준
- 직업 만족도도 중장년층 남성 2.95, 중장년층 여성 3.31, 노인층 3.30 대비 낮은 수준
- 여가생활만족도 중장년층 남성 3.05, 중장년층 여성 3.24, 노인층 3.28 대비 낮은 수준
- 4개 항목 모두 중장년층 여성과 노인층이 비슷한 수치인 반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수치만 유독 하락되어 있고 유의성도 검증되었다는 것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가 중장년층 여성이나 노인층 대비하여 관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석 할 수 있음

○ 기타, 주거지역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대체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열위에 있다고 보여짐

- 거지역은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서울 및 광역시 거주비율이 49.5% 로서 중장년층 여성 46.4%, 노인층 36.2% 대비 높은 수준
- 반면, 주거환경 만족도는 중장년층 남성이 3.24, 중장년층 여성 3.49, 노인층 3.56 대비 낮은 수준
  - 이는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주거비용 부담, 주거환경 등의 사유로 인해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3)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내 혼인상태별 특성 비교 분석

○ [표 3-3]에서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내 혼인상태별 집단의 생활실태에 대한 특성을 비교하였음

-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구분을 사별, 이혼·별거, 미혼 등 3분류 하였으나 사별의 경우 데이터가 7개에 불과하여 그대로 분석할 경우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

  • 따라서, 사별을 이혼 및 별거 분류에 포함하여, 크게 기혼과 미혼 2개로 분류

- 또한, 데이터가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2표본 t-검증을 하였고, 이산형 변수에 대해서는 χ^2 연관성 검증 실시

○ 전반적 만족도는 기혼 3.27, 미혼 2.86으로 대체로 기혼자였던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미혼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다소 높다고 분석(유의수준$p < 0.01$)

○ 경제적 문제 관련 6개 지표중 년소득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나머지 재산, 부채, 경제활동여부, 근로능력정도, 가족수입만족도 등은 집단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 다만, 통계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평균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는 경제적 수준이 약간 높다는 정황은 보여주고 있음

○ 신체적 문제 관련, 건강상태, 건강만족도, 만성질환유무 등 3개 항목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 정신적 문제 관련, 주관적행복감, 우울증, 자아존중감 등, 3개 항목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 사회적 문제 관련 항목은 3개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전

반적으로 미혼자 그룹이 열악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는 기혼자 그룹이 3.470, 미혼자 그룹이 3.045로서 미혼자 그룹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
- 직업 만족도도 기혼자 그룹이 3.197, 미혼자 그룹이 2.591로서 미혼자 그룹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
- 여가생활 만족도도 기혼자 그룹이 3.197, 미혼자 그룹이 2.818로서 미혼자 그룹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
- 가족관계만족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평균치는 미혼자 그룹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추정
- 이렇듯 사회적 문제 관련 항목에서 기혼자 그룹보다 미혼자 그룹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미혼자 그룹의 사회적 관계가 기혼자 그룹 대비 관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는 있어 보임.

○ 기타에서는 주거지역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주거환경 만족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대체로 미혼 그룹이 열위에 있다고 보여짐

○ 결론적으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서 혼인상태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문제 중심으로 미혼자 그룹이 기혼자 그룹보다 다소 열위에 있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통계량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 따라서, 분석 및 연구의 범위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전체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진행함

[표 3-2]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와 비교집단과의 분석

구분			1인 가구			F / x^2
			중장년 남성	중장년 여성	노인층	
전반적 만족도		Mean	3.11	3.39	3.41	10.23***
		S	0.817	0.707	0.672	
경제적 문제	년 소득	Mean	2242	1894	1223	100.58***
		S	1638	1355	733	
	재산	Mean	6069	8746	4908	4.39*
		S	18862	19112	14212	
	부채	Mean	1589	2078	13431	0.13
		S	4687	9118	357716	
	경제활동 여부	아니오	45.9%	43.6%	74.0%	88.988***
		예	54.1%	56.4%	26.0%	
	근로능력 정도	Mean	3.51	3.76	3.11	46.87***
		S	0.883	0.545	0.875	
	가족수입 만족도	Mean	2.55	2.85	2.93	10.11***
		S	0.894	0.859	0.846	
신체적 문제	건강상태	Mean	3.32	3.22	2.78	34.25***
		S	0.934	0.930	0.860	
	건강 만족도	Mean	3.01	2.96	2.70	10.40***
		S	0.991	0.920	0.919	
	만성질환 유무	없음	40.5%	22.1%	7.9%	132.532***
		있음	59.5%	77.9%	92.1%	
정신적 문제	주관적 행복감	Mean	6.02	6.47	6.54	0.17
		S	9.120	8.108	9.285	

구분			1인 가구			F / x^2
			중장년 남성	중장년 여성	노인층	
정신적 문제	우울증	Mean	20.80	20.64	21.56	1.21
		S	6.961	7.503	8.231	
	자아존중감	Mean	22.33	22.44	21.70	1.14
		S	5.408	6.401	6.930	
사회적 문제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	Mean	3.30	3.60	3.59	10.17***
		S	0.785	0.633	0.654	
	가족관계만족도	Mean	3.26	3.68	3.67	16.02***
		S	0.820	0.590	0.729	
	직업만족도	Mean	2.95	3.31	3.30	11.74***
		S	0.932	0.750	0.710	
	여가생활만족도	Mean	3.05	3.24	3.28	4.94**
		S	0.850	0.795	0.755	
기타	주거지역	시/도농	50.5%	53.6%	63.8%	12.715**
		서울/광역	49.5%	46.4%	36.2%	
	주거환경만족도	Mean	3.24	3.49	3.56	10.00***
		S	0.898	0.802	0.722	

[표 3-3]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내 혼인상태별 비교분석

구분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p-value	비고
			기혼 (사별/이혼 등)	미혼		
전반적 만족도		Mean	3.27	2.86	0.010**	
		S	0.795	0.795		
경제적 문제	년 소득	Mean	2574	1754	0.005**	
		S	1787	1257		
	재산	Mean	6647	5221	0.673	
		S	21805	13630		
	부채	Mean	2224	658	0.052	
		S	5588	2703		
	경제활동 여부	아니오	39.4%	55.6%	0.093	
		예	60.6%	44.4%		
	근로능력 정도	Mean	3.545	3.467	0.641	
		S	0.915	0.842		
	가족수입 만족도	Mean	2.591	2.500	0.615	
		S	0.841	0.976		
신체적 문제	건강 상태	Mean	3.273	3.378	0.560	
		S	0.953	0.912		
	건강 만족도	Mean	3.121	2.84	0.154	
		S	0.953	1.03		
	만성질환 유무	없음	36.4%	46.7%	0.278	
		있음	63.6%	53.3%		
정신적 문제	주관적 행복감	Mean	5.58	6.7	0.611	
		S	1.91	14.2		

구분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p-value	비고
			기혼 (사별/이혼 등)	미혼		
정신적 문제	우울증	Mean	19.94	22.07	0.175	
		S	3.69	9.91		
	자아 존중감	Mean	21.79	23.13	0.274	
		S	2.60	7.87		
사회적 문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Mean	3.470	3.045	0.006**	
		S	0.728	0.806		
	가족관계 만족도	Mean	3.318	3.182	0.400	
		S	0.807	0.843		
	직업 만족도	Mean	3.197	2.591	0.001***	
		S	0.827	0.927		
	여가생활 만족도	Mean	3.197	2.818	0.025*	
		S	0.789	0.896		
기타	주거지역	시/도농	56.1%	42.2%	0.152	
		서울/광역	43.9%	57.8%		
	주거환경 만족도	Mean	3.500	2.841	0.000***	
		S	0.770	0.939		

3. 회귀분석

1) 변수정의

○ 지금까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성을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 및 노인층 1인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

○ 여기서는 앞서 살펴 본 각 항목중 각 영역별 대표적 항목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 [표 3-4]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등을 나타낸 것임

- 먼저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본 지표가 한국복지패널 조사시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질문한 항목이어서 선정하였음

- 독립변수로서 먼저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득과 재산을 선정하였음

  •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의 처분 등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신체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건강상태와 건강만족도를 산정하였음

  • 건강상태는 현재의 건강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건강만족도는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도가 반영된 요소라고 판단하였음

- 정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관적행복감과 우울증 지표를 산정하였음

  • 주관적 행복감은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측정한 것이고 우울증 지표는 11개의 설문을 통해 자동적으로 산정된 지수이기에 본인의 주관적 요소가 일정부분 배제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와 여가생활만족도를 산정하였음
  - 사회적 관계란 가족관계 직업과 관련된 관계, 친구 등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에 따른 관계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1인 가구 관점에서 가족관계와 경제적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직업만족도를 제외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여가생활반족도로 산정하였음
- 기타항목으로 주거 관련 사항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주거만족도도 산정하였음

[표 3-4]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척도	변수 정의
종속 변수	전반적인 만족도	간격 척도	[만족도 지수] 1. 매우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만족
독립 변수	년 소득	비율 척도	년 소득 총액 (단위: 만원)
	재산	비율 척도	총 가격 (단위: 만원)
	건강상태	간격 척도	[건강 지수] 1.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한 편이다 5. 아주 건강하다
	건강만족도	간격 척도	[만족도 지수] 1. 매우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만족

구분	변수	척도	변수 정의
독립 변수	주관적 행복감	간격 척도	[삶의 사다리 지수] 밑(0: 최악의 상태)에서 꼭대기(10: 최상의 상태)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고,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질문. 0~10
	우울증 지표	비율 척도	[우울증 지수] 0. 극히 드물다 1. 가끔 있었다 2. 종종 있었다 3. 대부분그랬다 11개 항목에 대한 합산 : 0~33점
	사회적친분 관계만족도	간격 척도	[만족도 지수] 1. 매우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만족
	여가생활 만족도	간격 척도	[만족도 지수] 1. 매우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만족
	주거 만족도	간격 척도	[만족도 지수] 1. 매우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 만족, 5. 매우만족

2) 독립변수 특성별 탐색적 분석

○ 회귀분석에 앞서 인구통계학 변수 및 각 독립변수내 분류별로 전반적인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표 3-5]에 나타내었음

○ 전반적으로 지역별 분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각 변수내 분류별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고 해석되어짐

[표 3-5] 독립변수 특성별 탐색적 분석

구분		N (개)	만족도 지수	유의확률
전체		110	3.11	-
년소득	1. 1200만 미만	34	2.62	.000
	2. 1200~2400만	32	3.09	
	3. 2400~3600만	29	3.31	
	4. 3600만 이상	15	3.87	
교육 수준	1. 고졸이하	91	3.03	.032
	2. 전문대 이상	19	3.47	
지역별	1.시, 도농	56	3.21	.170
	2. 서울 및 광역시	54	3.00	
건강 상태	1.건강이 아주 안좋다	2	2.00	.000
	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4	2.50	
	3. 보통이다	28	3.11	
	4. 건강한 편이다	50	3.36	
	5. 아주 건강하다	6	3.83	
건강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00	.000
	2. 대체로 불만족	29	2.69	
	3. 그저 그렇다	33	3.21	
	4. 대체로 만족	38	3.45	
	5. 매우 만족	3	4.33	
주관적 행복감	1~2단계	10	2.20	.000
	3~4단계	25	3.0	
	5~6단계	49	3.06	
	7~8단계	20	3.65	
	9~10단계	6	3.67	
우울증 지표	정상 (~15점)	99	3.19	.000
	우을증 (16점 이상)	11	2.366	

구분		N (개)	만족도 지수	유의확률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2	1.50	.001
	2. 대체로 불만족	15	2.00	
	3. 그저 그렇다	42	2.98	
	4. 대체로 만족	50	3.60	
	5. 매우 만족	1	4.00	
여가생활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4	1.75	.000
	2. 대체로 불만족	24	2.38	
	3. 그저 그렇다	46	3.07	
	4. 대체로 만족	35	3.80	
	5. 매우 만족	1	4.00	
주거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6	2.17	.000
	2. 대체로 불만족	14	2.43	
	3. 그저 그렇다	40	2.98	
	4. 대체로 만족	48	3.54	
	5. 매우 만족	2	3.00	

주)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총계는 111명이나 전반적 만족도는 미답변 1명

3) 회귀분석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으로 다음의 (식 3.1)과 같은 모형을 사용하였다.

$$\begin{aligned} Sat = {} & \beta_0+\beta_1(\text{소득}_i)+\beta_2(\text{재산}_i)+\beta_3(\text{건강상태}_i)+\beta_4(\text{건강만족도}_i) \\ & + \beta_5(\text{주관적 행복감}_i)+\beta_6(\text{우울증}_i)+\beta_7(\text{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_i) \\ & + \beta_8(\text{여가생활만족도}_i)+\beta_9(\text{주거환경만족도}_i) \end{aligned} \quad \text{(식 3.1)}$$

○ 회귀분석 결과는 [표 3-6]~[표 3-7]과 같음

- [표 3-6]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를 나타내었음

  • 전반적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9개의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자유도를 반영한 R^2 adj(다중회귀 결정계수)는 69.50%로서 대체로 양호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짐

  • 또한, F-value는 28.60, F-value에 대한 p-value(유의확률)은 0.000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6]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모형

모형 요약

S	R-제곱	R-제곱(수정)	R-제곱(예측)
0.451012	72.02%	69.50%	64.49%

분산 분석

출처	DF	Adj SS	Adj MS	F-값	P-값
회귀	9	52.3497	5.81663	28.60	0.000
Inc2	1	0.0397	0.03973	0.20	0.659
weal_s	1	0.0853	0.08526	0.42	0.519
physi_11	1	0.0482	0.04822	0.24	0.627
heal_s	1	2.2218	2.22175	10.92	0.001
sadari	1	0.2054	0.20543	1.01	0.317
ueul_T	1	0.0696	0.06958	0.34	0.560
soci_s	1	4.0423	4.04234	19.87	0.000
leas_s	1	2.5653	2.56528	12.61	0.001
hou_s	1	1.8688	1.86879	9.19	0.003
오차	100	20.3412	0.20341		
총계	109	72.6909			

- 본 분석결과 다중회귀식은 [표 3-7]에 의거하여 아래의 (식 3.2)와 같이 표현됨

$$Sat = 0.147+0.000015(\text{소득}_i)+0.000002(\text{재산}_i)-0.0367(\text{건강상태}_i)$$
$$+0.2310(\text{건강만족도}_i)-0.0277(\text{주관적 행복감}_i)-0.0095(\text{우울증}_i)$$
$$+0.3867(\text{사회적친분관계만족도}_i)+0.2709(\text{여가생활만족도}_i)$$
$$+0.1787(\text{주거환경만족도}_i) \quad \text{(식 3.1)}$$

○ 회귀분석 결과는 [표 3-6]~[표 3-7]과 같음

- [표 3-6]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를 나타내었음
  - 전반적 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9개의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결과, 자유도를 반영한 R^2 adj(다중회귀 결정계수)는 69.50%로서 대체로 양호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짐
  - 또한, F-value는 28.60, F-value에 대한 p-value(유의확률)은 0.000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각 변수별 해석은 다음과 같음
  - “년 소득”은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유의적임(p value=.659)
  - “재산”은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유의적임(p value=.519)
  - “건강상태”는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유의적임(p value=.627)

[표 3-7] 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계수

계수

항	계수	SE 계수	T-값	P-값	VIF
상수	0.147	0.590	0.25	0.803	
Inc2	0.000015	0.000035	0.44	0.659	1.74
weal_s	0.000002	0.000003	0.65	0.519	1.41
physi_11	-0.0367	0.0754	-0.49	0.627	2.67
heal_s	0.2310	0.0699	3.30	0.001	2.57
sadari	-0.0277	0.0276	-1.00	0.317	1.60
ueul_T	-0.0095	0.0163	-0.58	0.560	2.19
soci_s	0.3867	0.0868	4.46	0.000	2.48
leas_s	0.2709	0.0763	3.55	0.001	2.25
hou_s	0.1787	0.0590	3.03	0.003	1.50

- “건강만족도”는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의적이고(p value=.001), 다른 변수값이 동일하다면 건강만족도가 1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만족도는 0.231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주관적행복감”는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유의적임(p value=.317)
- “우울증”은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유의적임(p value=.560)
-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는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의적이고(p value=.000), 다른 변수값이 동일하다면 사회적친분관계 만족도가 1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만족도는 0.3867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여가생활 만족도”는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

의적이고(p value=.001), 다른 변수값이 동일하다면 여가생활 만족도가 1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만족도는 0.2709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주거환경 만족도"는 다른 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의적이고(p value=.003), 다른 변수값이 동일하다면 주거환경 만족도가 1이 증가할수록 전반적 만족도는 0.1787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회귀식이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변수별로는 주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변수들이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문제, 신체적 문제, 정신적 문제, 사회적 문제 중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이며 그 뒤로 여가생활 만족,도 건강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순서임

4. 실증분석에 따른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 통계적 실증분석에 의해 도출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대체로 생활만족도가 타 계층(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 및 노인층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사회적 문제가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

- 세부적으로 경제적 문제의 경우, 타 계층 보다 중장년층 남성 1인 가

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

- 그러나 비교 대상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복지패널 전체 가구의 년소득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근본적으로 1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열악한 상태

- 신체적 문제도 타 계층보다 건강이 가장 좋은 수준으로 분석

- 정신적 문제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보다는 열악한 것으로 분석

- 사회적 문제의 경우, 세부 항목 모두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와 노인층 가구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반면, 유독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열악한 특성을 보이는 등 고립·소외로 대변되는 사회 관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

- 기타, 주거문제도 대체로 열위에 분석되어지며 상대적으로 거주지가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주거비용 부담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

[표 3-8]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비교(상대적)

	중장년층 남성 1인	중장년층 여성 1인	노인층
전반적 만족도	열위	우위	우위
경제적 문제	우위	중간	열위
신체적 문제	우위	중간	열위
정신적 문제	열위	중간	우위
사회적 문제	열위	우위	우위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내 영향도 분석에서도 여러 요인중 사회적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

- 회귀분석상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중 사회적 문제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분석

제2절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 인터뷰조사

1. 인터뷰 참여자들의 주요 특징

○ 본 연구에서는 제1절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여러 시사점들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

- 인터뷰는 2019년 8월 7일부터 20일간 사전준비를 거쳐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

- 인터뷰 대상자는 서울시 복지담당자의 지원 및 종로 5, 6가 동사무소의 협조하에 선정하고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추가

  • 종로 5, 6가동 저소득층 자원봉사자와 연결되어 대상자에게 사전 인터뷰 요청 및 승인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 당초에는 지역 동사무소의 협조하에 인터뷰 대상자 전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지역내에서 인터뷰를 원하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많지 않았고 선정된 가구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인터뷰 대상자를 추가

  • 즉, 자원봉사자 다양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인터뷰 대상의 폭을 확대

- 인터뷰 참석자들은 자신이 1인 가구가 된 경위부터 현재의 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정신적 문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희망사항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

○ 본 인터뷰에 참여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징은 [표 3-9]에 제시

- 나이는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분포

- 학력도 고졸 2, 전문대졸 1, 대졸 3, 대학원졸 1명 등 고르게 분포
- 직업은 정규직 1, 계약직 3, 무직 3명으로 통계분석상의 분포와 유사
- 1인 가구 사유로는 미혼 2, 이혼 4, 별거 1명으로 조사
- 혼자 거주기간으로는 미혼의 경우 30년 이상이고 이혼 및 별거는 8~19년까지 대체로 오랜 기간 1인 가구로 지냈던 것으로 파악
- 거주지역은 인터뷰 실시 한계상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거주자로 국한

[표 3-9]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 인터뷰 참여자 특징

구분	나이	학력	직업유무	1인가구사유	혼자 거주기간	거주지역
1	55	대학원졸	무직	미혼	31년	대도시(서울)
2	53	대졸	정규직	이혼	19년	대도시(서울)
3	62	고졸	무직	이혼	12년	대도시(서울)
4	48	대졸	계약직	이혼	8년	대도시(부산)
5	61	대졸	계약직	별거	10년	대도시(서울)
6	63	고졸	무직	미혼	33년	대도시(서울)
7	57	전문대졸	계약직	이혼	5년	대도시(서울)

2.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 형성 과정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된 사유로는 다수가 미혼과 이혼·별거로 조사되고, 결혼 시기를 놓치거나 이혼 이후 직장 일 및 등에 전념하거나 특수한 장기입원 등으로 인해 1인 가구로 정착

- “그냥 살다보니 결혼 시기를 놓쳤고 치열하게 직장생활 하다보니 결혼에 대해서는 계속 차일피 미루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제는 혼자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하다못해 부모님이 내 집에 오셔서

1주일 정도 같이 지내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I1)

-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다보니 20대때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30대 공장에 근무했을 때 밤낮이 바뀌고 격무에 시달이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어 그 이후 30여년간 정신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었습니다."(I6)

- "결혼 초기에 서로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1년도 못된 시점에 이혼 했어요. 그 뒤로 오히려 회사생활에 전념하고 취미활동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못했네요. 또한 한번 실패하다 보니 재혼이 두려운 마음도 들고요,"(I2)

○ 지속적인 경제적 사정에 의해 이혼 및 별거한 경우도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형성에 한 몫

- "20여년전에 뇌졸중을 알아 그 뒤로 경제적 활동을 거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 가정생활도 어렵고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해서 나왔어요. 이혼은 10년전쯤 했고요, 지금은 그냥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I3)

- "IMF 외환위기때 사업이 망했고, 그 뒤로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다보니 성격도 변하고 주변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어졌으며, 가족과의 대화도 없어지게 되어 결국 홀로 기러기 생활 한지 10년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I5)

3.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는 만족 그룹과 불만족 그룹이 나뉘어지고 전반적으로 만족 그룹은 경제적 자립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 "지금 퇴직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못했던 나의 취미활동 등을 아무런 제약없이 할 수 있어서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주위의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퇴직후에 집에 눈치들을 많이 보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지요."(I1)
- "아직 직장생활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정년까지 보장되니 별 걱정 없어요. 정년이후도 연금과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혼자 살기는 어렵지 않아요. 계속 내 취미 활동 하면서 살껍니다."(I2)
- "이혼전에는 성격차에 따른 불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혼이후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졌으며 내 취미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이 훨씬 생활하는데 만족스럽습니다."(I4)
-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며 이혼으로 인하여 고독감은 약간 느끼고는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해방감을 느낍니다."(I7)

○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룹은 생활만족도가 불만족으로 답변

- "매달 50만원 수준의 기초생활 수급비로 살아가는데 원비(월세) 28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매일 라면만 먹다보니 몸에 힘도 없고, 사는게 힘듭니다."(I3)

○ 이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덜하지만 정신적 강박관념으로 인해 만족도가 불만족으로 답변하는 경우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홀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하다는 답변도 있었음

- "모든 것이 제 책임이예요. 나는 지금 회사 사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나로인해 가족관계가 붕괴되고 가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암울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I5)

- “현재 받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금액(75만원)으로 월세 및 부식비 등을 쓰더라도 조금은 저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술 담배는 일절 하지 않고 있어서 별 쓸 돈이 없어요. 이미 저축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에 불만은 없어요.” (I6)

4.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가족관계는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가족과의 교류도 원활하고 만족도도 높은 반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교류를 회피하는 등, 가족관계도와 생활만족도는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조카가 재수중인데 학원 다닌다고 지금 제 집에 와 있어요. 무척 신경이 쓰여요.”(I1)[24]
-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이신데, 1주일 한번정도는 저녁을 같이하고 있어요”(I2)
- “식구들이 따로 살고는 있지만 전부 부산에 있어서 거의 매일 연락하고 지냅니다.”(I4)
-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지만 누님들과 동생이 년 2~3회 찾아와서 식사도 같이합니다. 최근에는 치아가 좋지 않았는데 기공사 출신인 동생이 와서 직접 틀니도 맞추어 주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I6)
- “가족은 모친이 계신데 거의 매일 연락과 만남을 갖고 있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원만한 편입니다.”(I7)

24) 인터뷰 정황상 ‘신경쓰인다’는 말은 ‘조카 뒷바라지가 즐겁다’는 의미로 해석

- "가족을 안 만난지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명절 때 자식이 오라고 하는데 안가고 있어요. 가본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I3)
- "10여년간 기러기 생활을 하다보니 가족과는 가끔 전화 연락하는 정도이지 집안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짧지만 자녀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위안을 받기는 합니다만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무척 허전하고 다시 같이 살수 있을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I5)

○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인터뷰하였으나, 실제 교류 측면에서는 자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

- "서울시 50+ 교육에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서 나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고는 별로 연락하지는 않습니다."(I1)
- Cafe 모임[25)]이 1주일에 한번 있는데 이때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더욱이 점심도 주고 해서 식사도 해결되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은 주로 청계천을 혼자 걷곤 합니다"(I3)
- "최근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매주 댄스 동호회에 나가 춤을 배우고 있는데 무척 즐거운 시간입니다."(I5)
- "봉사단체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하는 모임(강의+점심제공)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도 1명 사귀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 친구도 1명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TV를 보거나 답답하면 혼자 사람이 있는 거리를 산책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I6)

25) Cafe 충신다품 :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간 (종로구 충신동)

-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창모임이나 동네 친구도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복지수급자 대응 업무로 하루 4시간씩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 교류를 자주 하므로 사회적 관계는 만족하는 편입니다."(I7)

○ 이러한 사회적 친분관계가 좀 더 깊게 발전되지 못하고 고립·소외되는 현상은 베이비부머로 대변되는 현재의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과 1인 가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성격을 소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

- "베이비부머 세대는 어느정도 취업과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어서 계속 대우 받기를 원하는 등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I1)
- "에이, 남자끼리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해? 몇 마디 하다보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I2)
- "내 처지가 좀 그래요. 그냥 귀찮아요."(I3)
- "내가 정신적 장해가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두려워요."(I6)
- "이혼가구라는 주위 시선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나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I7)

5.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 대체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며 생활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교류도 활발히 하는 그룹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으로 분석

- "고독사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I1, I2)

- "가족들과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 편이라 고독사에 대해서는 나랑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I4)
-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매우 건강한 편이고 어머님이 계시고 주위 친구들이 있어서 고독사에 대해서는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I7)

○ 반면, 생활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룹은 고독사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

- "작년에 우리 고시원에서 누가 죽었는데 몇일 뒤에 발견되었어요. 나도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 아닐지 두려움도 가끔 들어요."(I3)

○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친구들간의 교류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행동은 주저하는 편

- "무슨 전화를 합니까? 전화는 잘 안해요. 물론 전화 온 것은 반갑게 받고 통화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내가 전화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I3)

6.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경제적 문제

○ 현재 직업이 있거나 재산을 어느정도 축적한 그룹은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편

- "혼자 살기에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노후생활에 별 무리는 없을 듯 싶어요."(I1)
- "나중에 연금 나오고 내 퇴직금과 지금 모아 둔 것으로 지방에 가면 먹고 살기는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I2)
-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쓰고도 돈이 조금은 남아 저축할 수 있어서 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I6)

- "현재 계약직 일자리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 현재생활을 물론이고 노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I7)

○ 하지만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는 저소득자의 경우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기본 의지조차 약해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

- "지금 50만원으로 겨우 살고 있고요 노후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거리가 없고요, 혹시 나오더라도 제가 지금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일을 못해요."(I3)

- "현재는 겨우 먹고 살지만 재산도 없고 모은 돈도 별로 없다보니 노후생활에 대해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언제까지 일을 해야할 지, 계속 일할 곳이 있을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입니다."(I5)

- "지금의 상황을 탈피하려고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수급비로 최소한 살수 있으니 일을 할수 있음에도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26)]

7.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의 희망사항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그룹은 경제적 문제 해소가 1순위이며 특히 주거가 불안정한 그룹은 주거관련 지원을 요청

-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관리비도 싸다고 하던데 지금

26) 자원봉사자 인터뷰

고시원에 대는 돈의 절반도 안된다고 들었어요."(I3)

-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서 임대아파트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I2)

○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거나 불만이 없는 그룹은 사회적 교류와 1인 가구의 부정적 인식 해소에 대해 언급

- "1인 가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인 가구와 동일한 정책지원도 필요하고요. 지금의 모든 정책이 다인가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1인 가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커뮤너티가 많은데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도 많이 하고 참여도 유도하면 좋겠습니다."(I1)

- "현재의 중장년층 세대는 자녀유무와 상관 없이 1인 가구로서 노후 생활을 영유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바,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과는 다르게 직장 이외에는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 많지 않은 남성들의 경우, 은퇴 후에 지역 사회에서 유기적인 인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I2).

- "중장년 남성의 경우 기존 직장생활에서 퇴직시 사회적 친분관계가 좁아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지역내 인적교률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I4)

- "현재까지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기회도 여력도 없었지만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느낍니다. 교육도 받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갈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언 및 상담을 받을 수 있

는 곳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I5)

- “불가능하겠지만 나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I6)

- “장애인이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 고령으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문화놀이 카드를 지급하기 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생활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지원의 폭을 넓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I7)

○ 기타로는 주거와 사회교류를 융합한 거뮤너티 형성 의견, 중장년 1인 가구도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취업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임대 아파트나 주택 등 실버 타운 개념의 주거 공간을 조성 및 지원함으로서 1차적으로는 노후 생활의 경제적인 고충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대상자 상호간에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외로움, 우울증 등으로 인한 고독사 등의 병폐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I2)

- “중장년이후에도 결혼과 입양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가족구성원으로서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육 등을 책임지는 정책과 함께 중장년의 경험과 지식을 국가 및 지역경제에 활용 할 수 있는 취업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I4)

제3절 전문가 자문

1. 자문 개요

○ 일 시 : 2019년 9월 3일 10:30~12:00

○ 장 소 : 종로구 소재 자원봉사자 운영 Cafe

○ 자문자 : OOO Camp장

○ 자문자 소개

- 자원봉사 경력 12년(본인 생활은 별도로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전념)
-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10년전부터 지역소재 교회 사회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동사무소 및 서울시와도 연계되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 화요일은 Cafe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중식을 제공하고, 수·목·토는 반찬을 만들어 현재 67가구에 배달
- 자체 장학금 제도 운영 및 소외층 일자리 지원

2. 자문 주요내용

○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는 지역밀착·맞춤형 복지로 운영해야 함

- 우리나라 복지는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외계층이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올바른 복지는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국내 복지 실상은 아직

은 제공자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은 편

- 지방의 경우 집성촌이 수십년 같이 살아 눈치만 봐도 알지만,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예산문제 등으로 지역에 밀착하여 맞춤형 복지가 아니면 불가능

○ 소외계층의 고착화 된 가난을 탈피시키는 것이 관건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나 어느정도 수급후에는 당연한 지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개인적으로 만성적인 병을 앓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

-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과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 소외계층 중장년층은 일자리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일하는 자세 교육도 필요

- 일자리 지원시 경제적 문제 해결 외로 교류·교감 등으로 사회적 문제 해소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고 자활 일자리 사업도 소수이며, 일자리가 지원되더라도 일 흉내만 내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야기

- 이는 그 동안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삶, 정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와서 본인 스스로 일하겠다는 의욕이 떨어진 것이 원인

-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함께 일과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함이 필요

○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정부주도로 창출

-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최소한의 위탁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최종 소비자까지 내려오는 동안 자원배분상 손실이 발생

○ 자원봉사 센터는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 저소득층을 담당했으면 좋겠음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각 동별로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밀착형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자원봉사 운영은 민간 자원봉사에게 맡기고 정부에서는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이 바람직

- 열정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전념하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

- 개인이 홀로 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사회단체(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재원을 확충시키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민간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이미 확보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 민간 자원봉사는 열정을 가진 전담자 중심으로 운영 필요

- 내 이웃이 발 벗고 자면 행복하다는 사명감

- 자원봉사 운영이 힘들지만 향후 좋아질 것으로 보고 버틸수 있어야 함

- 어디서 지원이 오면 잘 배분하는데 초점

- 소외계층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효율적

제4절 시사점

○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타 계층인 중장년층 여성, 노인층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사회적 문제에 있어 열악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수준이 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
  -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인가구를 포함한 패널 전체 통계 대비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절대적으로는 열악한 편
- 신체적 문제는 타 계층보다 건강이 좋은 편으로 분석
- 정신적 문제는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보다는 열악한 것으로 분석
- 사회적 문제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타 계층보다 열악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중 사회적 문제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 위와 같은 베이비 부머로 대변되는 현재의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이러한 고립·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는 취업과 직장생활 등 그 동안의 삶의 경험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체험도 많은 계층이어서 상대적으로 자부심이 높은 편이고 고정관념도 강한 편
  - 즉, 계속 대우 받기를 원하고 옛날 생각에 얽매이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새로운 관계 형성을 시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스스로 사회

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고립·소외를 넘어 교류와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또한, 1인 가구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제반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1인 가구는 이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위축되는 현상도 문제

- 변화하는 가족형태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에서 패배자라는 의식으로 1인 가구임을 숨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교류보다는 고립·소외를 선택하는 경향

-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궁극적으로 혈연을 넘어선 안전과 친밀성을 담보하는 공동체 실현이 필요

○ 한편, 경제적 문제의 경우 삶의 기본적 요소로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다른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

- 기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경제적 문제 외 신체적 문제 및 정신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전 부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고착화 된 가난이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화 시키는 것으로 분석

  - 더욱이 사회적 압박감(고용불안 등)과 사회적 위기감(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까지도 연계

- 중장년층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싶어하나 소득과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

  -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 및 노인 일자리에 주력

- 따라서, 중장년층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처방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고 해소 및 정신적 자신감 회복이 시급 (전문가 자문)

○ 결론적으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지나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가 제반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제4장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제1절 개요

○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양산되고 있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이질적 특성 파악 및 고립·고독사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노인빈곤으로의 연결고리 차단 등의 정책적 함의를 융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목표임

- 기존 연구가 1인 가구 전체 또는 노인세대 중심으로 분석하다보니 중장년층 남성과는 동떨어진다는 개연성이 있는 바, 중장년층 남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수행으로 고립·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또한, 베이비부머의 다양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신체적·심

리적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복합적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하였음

- 정책대안 제시의 경우, 단편적인 정책대안 발굴보다는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융복합적 대안으로 접근하여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행복한 노년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해외조사, 실증분석 및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서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제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경제적 문제는 근본적 문제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를 기반으로 한 유형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도 전체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만 해당되는 방안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안도 함께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음

○ 따라서, 본장에서의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과 함께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함께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집중적 지원방안

1.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유형 분류

○ 1인 가구가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층 및 남녀에 따른 특성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는 일률적으로 접근되어 온 바, 본 연구는 1인 가구중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을 분석

- 이에,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중 사회적 문제가 타 계층 대비 열악하다는 것을 도출한 바 있음

- 그러나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조차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며 경제적 안정도가 떨어지는 경우 제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등, 중장년층 남성 1인가구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혼재되어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융복합적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도와 사회적 고립 리스크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4가지 유형에서 각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경제적 안정도가 높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활발한 생활안정가구,

- 경제적 안정도는 높으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서 사회적 고립 리스크가 높은 고립위험가구,

- 사회적 고립 리스크는 낮으나 경제적 안정도가 낮은 경제불안가구,

- 경제적 안정도가 낮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떨어지는 생활취약가구로 구분함.

[그림 4-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세부 유형분류

낮음 ← 사회적 고립리스크 → 높음

경제적 안정도 ↑ ↓

생활안정가구 (경제적 안정도가 높고 인간관계/사회관계가 활발한 가구)	고립위험가구 (경제적 안정도는 높으나 인간관계/사회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 리스크가 높은 가구)
경제불안가구 (사회적 고립의 리스크는 낮으나 경제적 안정도가 낮은 가구)	생활취약가구 (경제적 안정도가 낮고 인간/사회관계가 떨어지는 가구)

2.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유형별 특성 및 지원방안

1) 생활안정가구

○ 경제적 특성

- 생활안정가구는 대체적으로 경영자나 정규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구로서, 대부분 바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일이 바쁜 관계로 결혼상대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지금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건강적 특성

- 생활안정가구는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관리에 노력하는 가구로 비교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임

○ 사회적 특성

- 생활안정가구는 부모나 형제·자매와 교류가 많고 직장이나 일 또는 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어 문제발생 시에 대응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고독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음.
- 그러나, 직장이나 일을 그만 둔 이후에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약해지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음.
-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안정가구는 노년기에도 사회적 고립에 빠질 가능성은 적으나 미혼인 가구의 경우는 퇴직 등으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경우에는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지원방안

- 생활안정가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노후에 경제적 안정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프로그램과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
- 건강에 대해서도 주기적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서비스 실시, 중장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역보건소 및 시립병원 활용)
- 생활안정가구는 사회적 관계 및 교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에, 세부 그룹별 모임이 지속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임 지원방안을 강구
  - 또한, 경제적·건강적 문제가 양호하기에, 경제불안가구 및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도 모색
- 세부 실천 방안으로는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예: 50+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시 스스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세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참고로, 현재 50+ 교육 프로그램이 나름 성공적이었으나 앞으로 베이비부머의 참여가 많아질 경우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운영을 개선할 필요
-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50+ 교육프로그램이 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강요적인 참여를 요구하여 교육수강자의 지속적인 참여에 걸림돌[27]이 되고 있는 바, 강제적인 Push형 교육보다는 본인 스스로 다가오는 Pull형 교육으로 개선
-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2) 고립위험가구

○ 형성 과정

- 고립위험가구가 되는 주요 요인은 경제적 안정도는 높으나 일자리나 자녀교육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거나 이혼 등으로 자녀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미혼인 경우 등으로 나타남.

○ 경제적 특성

- 고립위험가구는 경영자나 정규직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구로서, 경제적 안정도는 높은 편

27) 인터뷰 : 50+교육에 대한 의견 – "나이도 있고 한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감히 시키는가?"(I1)

○ 건강적 특성

- 대체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관리에 노력하므로 비교적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임

○ 사회적 특성

- 직장이나 일에 의하여 형성되는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약하거나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미혼으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고립위험가구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상태에 빠져 있거나 향후 사회적 고립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구가 많음.

○ 지원방안

- 고립위험가구는 생활안정가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안정도가 높은 가구이므로 현재와 노후의 경제적 안정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보유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프로그램과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
- 건강에 대해서도 주기적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서비스 실시, 중장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지역보건소 및 시립병원 활용)
- 생활안정가구 대비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이기에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주도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지역모임/동호회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교, 군대, 직장생활 등 인위적으로 형성된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를 구축하여 왔기 때문에 여성에 비하여 자발적인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맡겨두기보다는 자치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결혼지원프로그램이나 지역별 친목모임, 여가나 취미 및 스포츠 동호회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즉, 생활안정가구의 경우의 자발적 참여와 달리 고립위험가구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관여해서 고립되지 않고 각 지역별 지원센터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벤트 등을 실시

3) 경제불안가구

○ 경제불안가구가 되는 주요 요인은 사업실패나 실직,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경우,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및 정신적 질병, 이혼 등으로 자녀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남

○ 경제적 특성

- 경제불안가구는 대부분 사업실패나 실직,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및 정신적 질병 등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로서,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직업에 종사하거나 실직 중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거나 수입이 매우 불안정하여 경제적 안정도가 낮음.
- 그리고, 노년기에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소득이 적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가구가 많음.

○ 건강적 특성

-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및 정신적 질병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제불안가구의 경우는 건강상태도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사회적 특성

- 경제불안가구는 경제적 안정도가 낮은 비정규직이거나 실직한 가구이나, 대체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위의 도움과 지원 등으로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수입이 없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해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지원방안

-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을 모색
-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고 아직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를 지원
  -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일자리를 통하여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정부 주도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나 지역내 민간단체 일자리를 우선 제공
  -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아르바이트 요원으로 참여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토록 지원 (즉,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득 창출)
-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시(기술/기능 교육) 지원
- 주거문제도 각 지역별 임대주택에 우선 배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해소
  - 또한, 임대주택을 통한 지역별 커뮤너티 구축
- 건강상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은 가구이기에 주기적으로 병원(보건

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지역보건소 및 시립병원 활용)

- 경제불안가구는 경제적 안정도가 떨어지기에 일자리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세부 그룹별 모임이 지속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임 지원방안을 강구(일자리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 또한,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기본급 개념의 유료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도 모색

4) 생활취약가구

○ 경제적 및 건강적 특성

- 생활취약가구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로서,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건강상태도 매우 나쁜 경우가 많음.
-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됨에 따라 사회와의 연계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사회적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음.

○ 사회적 특성

- 생활취약가구는 생활이 곤란해짐에 따라 가족과의 교류가 없어지면서 고립화되거나 저소득으로 가족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생활취약가구는 경제적 곤란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 곤란에 빠져 빈곤에 빠지는 경우도 있음.
- 경제적 문제와 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고립은 자립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지원방안

- 생활취약가구의 경제적 지원과 건강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경제불안가구와 동일하게 지원
- 그러나 생활취약가구의 경우 단순한 생활보호나 주택지원, 의료/간호지원 등과 같은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함
- 생활취약가구는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가구이므로, 정부가 특별관리(직접 관여)를 해야 하며, 이러한 행정적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NPO 단체나 지역의 자원봉사자와의 연계지원이 필요함.
  - 즉,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참가를 전제조건화 하여 고립되지 않고 각 지역별 지원센터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일자리 지원과 함께 일과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함이 필요

[표 4-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

	경제적 지원	건강적 지원	사회적 지원
생활안정가구	-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 자산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지역 중심의 교육 (예: 50+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주기적 건강검진 건강상담 서비스 - 중장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세부 그룹별 모임의 활성화 - 경제불안가구 및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

<table>
<tr><th></th><th>경제적 지원</th><th>건강적 지원</th><th>사회적 지원</th></tr>
<tr><td>고립위험가구</td><td>-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 자산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지역 중심의 교육 (예: 50+ 교육) 프로그램 확대</td><td>- 주기적 건강검진 건강상담 서비스
- 중장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td><td>- 지역모임/동호회를 통한 사회 관계망 형성
• 결혼지원프로그램
• 사회관계형성프로그램 및 세부 그룹별 모임 지원 (지역친목모임/동호회 모임 등)
→ 고립되지 않고 각 지원센터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여 (홍보, 이벤트 등)</td></tr>
<tr><td>경제불안가구</td><td rowspan="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한시적)
-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 정부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일자리, 지역 민간 단체 일자리 우선 제공
•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아르바이트 요원으로 참여
• 일자리 지원과 함께 일과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 실시
- 기술/기능교육지원
- 임대주택 우선 배정</td><td rowspan="2">- 주기적으로 병원(보건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
→ 지역 보건소 및 시립병원 활용</td><td>- 일자리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기본급 개념의 유료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td></tr>
<tr><td>생활취약가구</td><td>- 정부가 특별관리(직접 관여)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참가를 전제조건화
•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 실시
- 행정적 지원이외에도 다양한 NPO단체나 지역의 자원 봉사자와의 연계지원</td></tr>
</table>

제3절 전체 1인 가구 포괄적 지원방안

1. 1인 가구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

1) 문제제기

○ 늘어만 가는 1인 가구에 대응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취약 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형화 되고 전문화 된 형태의 접근이 아닌 실무 중심의 단발성 접근이 대다수

- 지자체별로 각각 1인 가구 지원책을 강구하다보니 일정한 기준과 프로세스 없이 단발성 조사 및 지원 (통일성·형평성 부족)

- 조사단계에서도 이질적 속성을 감안한 전문화된 기준 없이 실무 면담 중심으로만 문제점 발굴 및 단순 지원책 운영 (핵심원인 발굴 미흡)

  • 예)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에 일자리 제공이라는 단순 지원 처방으로 인해 무소득 신체결함자 등 복합문제자에 대한 대응이 불가

- 조사 체크리스크상의 문제점 발굴 판단 여부도 조사자(복지 플래너)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 (객관성 부족)

- 이미, 진입된 위기·취약 1인 가구 대처에 급급하다보니 취약계층으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은 미흡 (사전 예방성 부족)

○ 이에, 고립·고독사 등으로 야기되는 1인 가구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위기·취약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1인 가구에 대한 이질적 속성이 감안된, 융복합적인 유형화 작업과 기준치 개발이 필요

- 일본 닛세이 기초 연구소는 고립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예

방」 관점에서 2013~14년에 걸쳐 '장수 시대의 고립 예방에 관한 종합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립 Risk의 측정과 평가 지표를 전문적으로 개발

- 커뮤니케이션 양에 따라 「고립 위험 수준(Risk level)」를 설정하여 고립 리스크 요인을 추정하고 고립 예방의 관점을 명확히 함

○ 1인 가구가 처한 경제적 문제,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사회적 단절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정형화 된 지표 운영으로 형평성 문제도 해소

2. 기본 방향

○ 1인 가구가 처한 경제적 문제,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고립 및 사회 참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형화 되고 객관화 된 기준치 수립

- 분야별 정형화 된 기준은 관련 연구자료 문헌조사 등, 전문 연구자와 협업하여 개발

○ 각 분야를 통합, Matrix 형태의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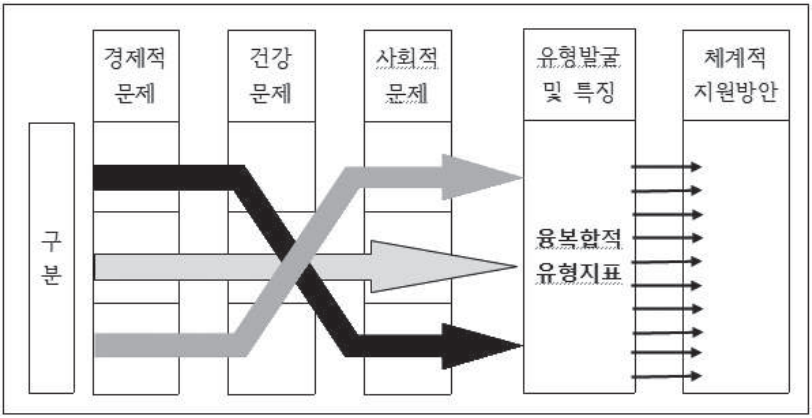
- 융복합적 유형화 작업과 기준치 개발은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 검사(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모형을 준용하여 개발

- Matrix형태로 구성하되 중복 경향은 통합하여 유형 개수는 적절히 조정

- 특징에 대응한 지원책 및 예방책 강구

○ 개발된 유형지수는 지자체 협조하, Pilot Test 운영을 통해 정교화 진행

[그림 4-2] 1인 가구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도



3)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 (모델 사례)

(1) 1인 가구의 구분 및 분류

○ 1인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경제적, 건강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3개 분야로 구분

- 경제 분야는 주거와 노후소득으로 구분

- 건강 분야는 영양상태와 질병유무로 분류

- 사회적 문제는 가족관계와 이웃유대 관계, 사회참여(여가 활동, 문화 활동, SNS 활동 등) 유무로 세분화

○ 각 분야별 문제가 없는 가구는 정상가구, 2가지 요소중 1가지가 문제인 가구는 예비가구, 2가지 모두 문제가 있는 가구는 지원가구로 구분

[표 4-2] 유형지표 개발을 위한 1인 가구 구분 및 분류표

구분		정상가구	예비가구*	지원가구
경제	주거	안정	주거나 소득 중 1가지가 불안정	불안정
	노후소득	안정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영양	정상	영양이나 질병 중 1가지가 문제	부실
	질병	무병자 관리가능		유병자
사회	가족/이웃관계	정상	가족/이웃관계나 사회참여 중 1가지가 문제	고립
	사회참여 (여가/문화/SNS 활동 등)	참여		미참여

주) 예비가구 :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적 관점의 관리가 필요한 가구

(2) 1인 가구 유형지표

○ 종합적인 유형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3] 1인 가구 유형지표

	정상가구	예비가구	지원가구
경 제	A	B	C
건 강	A	B	C
사 회	A	B	C

○ 주요 유형지표별 정의 및 특징 (예)

- 유형 AAA : 정상가구

- 유형 AAB
  - 경제분야와 건강분야는 정상이나 사회분야가 지원예비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 특징 : 현재 재산 또는 소득이 노후의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거나 건강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사회분야에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 발생시 지원가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유형
- 유형 ABB
  - 경제분야는 정상이나 건강분야, 사회분야가 지원예비가구에 해당하는 가구
  - 특징 : 현재 재산 또는 소득이 노후의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건강이나 사회분야에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 발생시 지원가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유형
- 유형 ABC
  - 경제분야는 정상이나 건강분야는 지원예비가구에 해당하고 사회분야가 지원가구에 해당하는 유형
  - 특징 : 현재 재산 또는 소득이 노후의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건강분야에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 발생시 지원가구로 전락할 수 있고 사회분야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유형
- 유형 ACB
  - 경제분야는 정상이나 건강분야가 지원가구에 해당하고 사회분야는 지원예비가구에 해당하는 유형
  - 현재 재산 또는 소득이 노후의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건강분야에 문제가 있어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분야에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 발생시 지원가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유형

- 유형 ACC

• 경제분야는 정상이나 건강분야가 지원가구에 해당하고 사회분야는 지원예비가구에 해당하는 유형

• 현재 재산 또는 소득이 노후의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건강분야에 문제가 있어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분야에 일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 발생시 지원가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유형

(3) 1인 가구 유형지표별 지원방안

○ 유형지표별 지원방안

유형별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각각 마련하고, 대상가구를 경제/건강/사회적 분야별 각 등급을 부여하여 각 등급별 지원방안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종합적 지원방안을 시행함

- 경제적 지원방안

• 예비가구(B) :

현재 소득은 안정적이나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는 현재의 재산과 안정적인 소득을 활용한 주거마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주거는 안정적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는 임대 등 주거를 활용한 중장기적 으로 소득확보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업 및 창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함.

그리고 현재는 물론이고 노후에 경제적 불안정에 빠지지 않도록 현재의 보유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프로그램과 노후재무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원가구(C) :

주거와 관련한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및 공동주택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소득과 관련해서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거나, 1인가구 돌보미나 1인가구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우선 제공

- 건강적 지원방안

- 예비가구(B) :

영양이나 질병관리에 있어서 1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가구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관리프로그램이나 질병관리프로그램 등을 지원

□ 영양부실 가구에 대해서는 영양식단 프로그램 제공이나 영양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리강좌 등을 지원하여 영양부실로 인한 질병 발생을 방지함.

□ 건강이 부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질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별 질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원가구(C) :

영양상태가 부실하고 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양면에서는 공공

시설을 통하여 영양식을 제공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영양식 배달서비스를 지원하고, 질병면에서는 치료/재활/회복을 위한 공적 의료기관이나 간병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연계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 지원방안

• 예비가구(B) :

가족/이웃관계나 사회참여 중 1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부문을 자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가족/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가구는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중재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지역 친목모임 등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가족/이웃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리고, 미혼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는 결혼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참여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가/취미/스포츠 동호회 모임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및 IT기기의 원활한 활용을 통한 정보단절 방지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활동에 자발적 참여기회를 제공함

• 지원가구(C) :

가족/이웃관계나 사회참여로부터 모두 고립되어 있는 가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발적 노력보다는 적극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 필요함.

□ 일자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와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일자리(1인가구 돌봄서비스 등)나 지역사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하여 인간관계/사회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지역사회 문화행사 등에 초대하거나, 벼룩시장/요리강좌 등 1인가구를 위한 행사를 개최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표 4-4] 유형지표별 지원방안

구분		예비가구	지원가구	지원방안
경제	주거	주거나 소득 1가지가 불안정	불안정	• 공공임대주택 입주관련상담 • 공동주택모델 개발 및 보급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 취업 및 창업 상담 및 지원 • 기능 및 기술교육 • 공공일자리 우선 제공 • 1인가구형 일자리 제공 (1인가구 돌보미,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등)
건강	영양	영양이나 질병 중 1가지가 문제	부실	• 영양식단표 제공 • 요리강좌 • 영양식 제공 • 식사배달서비스
	질병		유병자	•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및 상담 • 보건소 등 지역공공의료 기관연계 상담 및 치료

구분		예비가구	지원가구	지원방안
사회	가족/이웃 관계	가족/이웃관계나 사회활돌 중 1가지가 문제	고립	•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 이웃만남의 기회 제공 (지역별 친목모임 등) • 결혼지원프로그램 제공
	사회 참여 (여가/문화/SNS 활동 등)		미참여	• 지역친목모임 안내 및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소일거리 제공 • 지역 여가/취미/스포츠 동호회 모임 안내 • 지역사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초대 • 1인가구를 위한 행사개최 (벼룩시장/요리강좌 등) • IT교육 (컴퓨터/핸드폰 활용법 등)

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융복합적인 유형지표 개발을 통해 정형화 되고 전문화된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

- 각 지자체별 자체 지원에서 정형화 된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 지원 실행

-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노인복지정책 및 중장년층 고용창출과 양질의 중장년층 일자리 확산을 위한 노동정책 등에 근거로 활용

○ 1인 가구의 위협요인인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소외, 사회적 단절 등에 관한 유형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 강구 가능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독거 노인 및 중년 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 및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회복 (빈곤화, 사회적 보호대상자로부터 탈피 등)

- 질병, 상해 등으로 신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독거노인 및 중년 가구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만성적 질환으로의 악화 방지 및 사회적 보호대상자로부터 탈피 등) 및 사전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증진

- 이혼, 실직,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단신(무가족) 등으로 고립감, 소외감 등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독거가구에 대한 공동체 네트워크 참여 지원을 통하여 소외감 및 우울증 치료 (정신적 질환으로의 악화 예방)

- 고독사 방지 연구를 통한 노인 자살률 1위 국가 이미지 쇄신 및 노인 빈곤에 대한 사전적 해결

- 기타, 고립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묻지마 폭행 등 사회적 문제 탈피를 통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 중장년층의 생산적 노하우 전수와 경제활동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 발굴된 잠재 및 초기 1인 가구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방안

- 건강한 1인 가구에 의한 건강하지 않은 1인 가구 케어로 일자리 창출, 가사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식사, 공공세탁 장소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

- 지역 보건소를 거점으로 질병별 건강교실 운영 및 정기적 지속적 관리와 저비용의 건강한 1인 가구를 활용함으로써 건강관련 지원 사각

지대 해소

- 고립 탈피를 위해 남녀 만남의 기회 제공(중장년 새가족 찾기 등) 및 동병상련 모임 운영(기러기 모임, 이혼자 모임, 모태솔로 모임, 가족 소외자 모임 등)

2. 융복합 지원을 위한 거점형 센터 신설 및 협의체 확대 운영

1) 문제제기

○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밀착·맞춤형 복지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전문가 자문)

- 올바른 복지는 수요자 중심이어야 하나, 국내의 경우 아직은 정부·지자체 중심의 일률적·단편적 지원이 많은 편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주민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원조를 종합적으로 직접 실행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성과 복지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포괄적 지원사업 등을 지역에서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적 기관임
- 따라서, 국내도 동사무소별로 종합적인 지역밀착형·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센터 운용 검토 필요

○ 복지재원이 한정적인 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화된 시스템식 운영이 필요

- 현재 국내에도 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28]가 운영중이나 일자리 연계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까지는 어려운 실정

※ 전문가 자문
- 현실적으로 소외계층의 고착화 된 가난을 탈피시키는 것이 관건
- 소외계층 중장년층의 경우, 일작리 지원이 가장 중요하며 일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도 필요
- 양질의 일자리 확보는 정부주도로 창출

- 더욱이 각 지역별 자원봉사도 사회봉사단체, NPO, 종교단체 등, 각기 독자적인 운영으로 종합화·체계화 되지 못한채 소규모로 운영중
- 따라서, 이를 종합화되고 체계화 된 시스템 구축이 절실

※ 참고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직
- 구성방법 :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규모-10명 이상)
- 위원자격 : 동장, 사회보장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그 밖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8) p95 참고 참조

- 임원임기 : 2년이며, 연임 가능
- 기 능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음

- 복지사각지대 발굴
  - 빈곤 및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동에서 사회보장 대상자를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 현황을 파악
  -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부담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인정과 보상활동을 계획
  - 관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단체, 친목모임 등에 지역 복지욕구 또는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웃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관계와 소통으로 이뤄가는 네트워크 형태로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 지역 특화사업 추진
  - 관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실행한 후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발전

* 출처 : 국민신문고 –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2) 센터 신설 및 협의체 확대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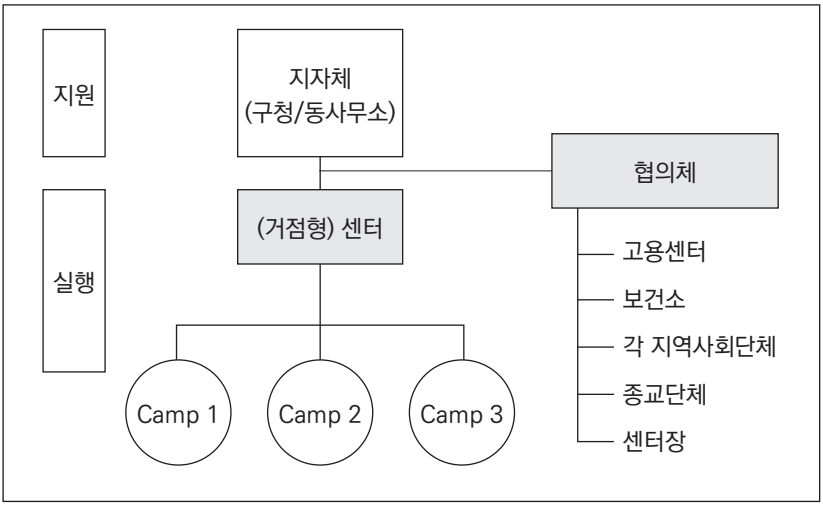
○ 거점형 센터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지원의 종합적인 실행 및 구심적 역할 수행

- 센터는 거점형으로 가급적 주민센터내 신설이 바람직
  - 단, 필요시 지역내 적정 장소도 가능
- 센터내 조직으로 지역내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을 직접 담당하는 (가칭) 캠프(Camp)를 운영
  - 캠프는 지원에 대한 수요, 지원 내역, 활동 내역 등,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에 대한 DB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행
  - 캠프는 센터내 1개를 운영할 수도 있고(이 경우, '센터장 = 캠프장'), 목적별로 여러 개를 운영할 수도 있으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센터장과 캠프장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센터 및 캠프 운영은 가급적 민간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고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원

○ 민간 협력 협의체 중심으로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 수행 (센터 지원)

- 지원의 기본체계는 지자체 등 행정조직이 담당
- 민간 협력 협의체는 기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하여 운영
- 기존 협의체 구성원에 고용센터 담당자, 보건소 담당자, 지역내 문화센터 담당자, 종교단체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일자리 지원 연계, 건강지원 연계, 사회적 교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지원

[그림 4-3] 1인가구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도



3. 1인 가구를 위한 기타 지원 방안

○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 1인 가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이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 하도록 홍보
- 단, 중장년층 및 노인층 중심으로 하되, 청년층의 경우 결혼을 통한 전통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음
- NPO 등을 활용한 사회운용 형태로 전개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완

○ 다인 가구 중심으로 된 제반 인프라를 1인 가구도 고려하여 재정비

- 영구임대주택 등 주택관련 지원에 있어서 다인 가구 중심 지원기준에서 1인가구도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차별성 철폐

- 센터장 및 캠프장들의 경우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부분 공유가 필요
  - 각 지자체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개인정보 공유는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
  - 일본의 경우 주민 등록된 75세 이상의 고령자 1인가구의 개인정보를 민생위원 및 지역 포괄센터에 제공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파악된 상황에 맞추어 상담지원 및 지킴이 활동 등으로 연결하고 있음
- 자원봉사인력 등 전담인력(센터장 및 캠프장) 양성
  - 민간 자원봉사는 열정을 가진 전담자 중심으로 운영 필요
  -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교육실시 및 전담자 관리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제언

○ 지금까지 베이비 부머로 대변되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특성 및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실증분석 결과,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타 계층인 중장년층 여성, 노인층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사회적 문제에 있어 열악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고립·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동안의 삶의 경험 과정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성공체험도 많은 계층이어서 상대적으로 자부심이 높고 고정관념이 강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스스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방안, 즉 경제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이 고립·소외를 넘어 교류와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한편,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의 경우 삶의 기본적 요소로서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다른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
  - 기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경제적 문제 외 신체적 문제 및 정신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 전 부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
  - 특히, 고착화 된 가난이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고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 중장년층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싶어 하나 소득과 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청년 및 노인 일자리에 주력
  - 따라서, 중장년층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처방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생활고 해소 및 정신적 자신감 회복이 시급

- 결론적으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지나 기본적으로는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가 제반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에 지원방안 도출 시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려한 유형별 접근이 필요

- 또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도 전체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만 해당되는 방안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안도 함께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

- 따라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

결방안은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과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함께 제시

○ 제안한 융·복합적 지원방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으로서 경제적 안정도와 사회적 고립 리스크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4가지 유형에서 각각의 지원방안을 도출

  • 경제적 안정도가 높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활발한 생활안정가구, 경제적 안정도는 높으나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서 고립 리스크가 높은 고립위험가구, 사회적 고립 리스크는 낮으나 경제적 안정도가 낮은 경제불안가구, 경제적 안정도가 낮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떨어지는 생활취약가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각 유형별 지원방안은 다음의 [표 5-1]과 같음

- 둘째,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 지원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현재 늘어만 가는 1인 가구에 대응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형화 되고 전문화된 형태의 접근이 아닌 실무 중심의 단발성 접근이 대다수

  → 이에, 고립·고독사 등으로 야기되는 1인 가구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1인 가구에 대한 이질적 속성이 감안된 융·복합적인 유형화 작업과 기준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 (융·복합적 유형지표 개발)

[표 5-1]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 지원방안

<table>
<tr><th></th><th>경제적 지원</th><th>건강적 지원</th><th>사회적 지원</th></tr>
<tr><td>생활안정가구</td><td rowspan="2">-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 자산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지역 중심의 교육 (예: 50+ 교육) 프로그램 확대

- 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 자산관리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 지역 중심의 교육 (예: 50+ 교육) 프로그램 확대</td><td rowspan="2">- 주기적 건강검진 건강상담 서비스

- 중장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td><td>- 세부 그룹별 모임의 활성화
- 경제불안가구 및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td></tr>
<tr><td>고립위험가구</td><td>- 지역모임/동호회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 결혼지원프로그램
• 사회관계형성프로그램 및 세부 그룹별 모임 지원 (지역친목모임/동호회 모임 등)
→ 고립되지 않고 각 지원센터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여 (홍보, 이벤트 등)</td></tr>
<tr><td>경제불안가구</td><td rowspan="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한시적)
-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지원
• 정부 주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일자리, 지역 민간 단체 일자리 우선 제공
• 각 지역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아르바이트 요원으로 참여
• 일자리 지원과 함께 일과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 실시
- 기술/기능교육지원
- 임대주택 우선 배정</td><td rowspan="2">- 주기적으로 병원 (보건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
→ 지역 보건소 및 시립병원 활용</td><td>- 일자리를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 생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기본급 개념의 유료봉사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td></tr>
<tr><td>생활취약가구</td><td>- 정부가 특별관리(직접 관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 참가를 전제조건화
·삶의 만족에 대한 교육 실시
- 행정적 지원이외에도 다양한 NPO단체나 지역의 자원봉사자와의 연계지원</td></tr>
</table>

- 둘째,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밀착·맞춤형 복지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재원이 한정적인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화된 시스템식 운영이 필요

  → 이에, 거점형 센터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지원의 종합적인 실행 및 구심적 역할 수행하고, 민간 협력 협의체 중심으로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1인 가구 및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역할 수행함을 제안 (거점형 센터 신설 및 협의체 확대 운영)

- 셋째, 1인 가구를 위한 기타 지원 방안으로 1인 가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이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하도록 홍보(NPO 등을 활용한 사회운동 형태 등), 다인 가구 중심으로 된 제반 인프라를 1인 가구도 고려하여 재정비(법적 차별성 개선, 취약계층 종합적 지원 목적하 관계자에 한해 개인정보 일부 공유 등), 자원봉사 전담인력 양성(교육) 등을 제안

제2절 연구 성과 및 한계점

○ 본 연구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써 기존 1인 가구 연구대비 차별성이 있음

- 기존 연구들은 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전체 1인 가구의 특성 및 현상, 또는 지역별 전수조사 등 지자체 중심의 연구와 더불어 독거노인 등 노년층 및 여성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었음
  - 반면,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더불어 양산되고 있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이질적 속성 파악 및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융·복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차별적 요소임

○ 반면,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한계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추후에 후속 연구과제로 맡기고자 함

- 첫째, 통계적 분석에 있어 타 계층별 비교분석은 적절한 통계량이 있었으나 회귀분석 총량이 111개로 모수가 적어 회귀분석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더욱이,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원인별 분석은 의미가 있었으나 통계량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음
- 둘째, 최근에 지자체 중심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활용을 하지 못했음
  - 이는 서울시에서 나중에 각 구청별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현실적인 정보 부족으로 현장 지향적인 대안 도출에 애로가 있

어 아쉬움이 남음

- 이는, 각 세부방안별로 후속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

부록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사회적 특성 및 융복합적 대안 발굴을 위한 인터뷰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뷰는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의 사회적 특성 및 융복합적 대안 발굴”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은퇴 등으로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그룹의 사회적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서울시 50+재단과 협업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귀하께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50+ 재단에서 지원하는 이번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여러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조사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 연구책임자 : 박준범 박사 (한국은퇴연구아카데미)
□ 연 구 진 : 권병구 박사, 박홍민 교수, 오경석 상무, 김민기 상무
□ 후 원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일반적 사항 〉

• 나　이 : 만 (　　세)

• 학　력 :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 이상

• 거주지역 : (　　)

• 귀하께서 1인 가구가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별　② 이혼　③ 별거　④ 미혼　⑤ 기타 (　　)

- 혼자 거주기간은? (　　년　　개월)

〈 총 괄 〉

총1. 귀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1인 가구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어떠하신지요?

• 총1-1. 1인 가구 이전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이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②번 체크시 불만족 사유는?)　　(④,⑤번 체크시 만족 사유는?)

• 총1-2. 1인 가구 이후 만족도

①	②	③	④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이다	약간 만족

(①,②번 체크시 불만족 사유는?)　　(④,⑤번 체크시 만족 사유는?)

〈사회적 관계〉

• 사-1. 귀하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부, 모, 배우자, 자녀, 없음 등)

( )

• 사-2. 귀하는 가족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이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②번 체크시 불만족 사유는?) (④,⑤번 체크시 만족 사유는?)

• 사-3. 가족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① 거의 매일 한다 ② 주 1일 이상 ③월 1~3회
④ 년 수회 ⑤ 수년에 한번 ⑥ 거의 하지 않음

• 사-4.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친분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이다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②번 체크시 불만족 사유는?) (④,⑤번 체크시 만족 사유는?)

• 사-5. 아프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2명 ③3~4명 ④ 5명 이상

• 사-6. 지역내의 사람들과 교류는 어느정도 하십니까?

① 자주한다 ② 보통이다 ③ 거의 교류가 없다

• 사 7. 여가나 취미와 관련된 활동 (예: 여행, 커뮤너티, 동호회 등) 활동은 하는지?

사7-1. 활동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 )

사7-2.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유는?

① 경제적 문제 ② 건강문제 ③ 성격상 문제 ④ 기타 ( )

• 사-8. 봉사활동이나 SNS 활동 등, 사회적 교류를 하고 있으십니까?

사8-1. 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 )

사8-2. 하고 있지 않다면, 사유는?

① 경제적 문제 ② 건강문제 ③ 성격상 문제 ④ 기타 ( )

• 사 9. 아프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가족,친척,친구,이웃,직장 동료 등)은 있으십니까?

① 있다 (명) ② 없다

• 사 10. 사회 교류와 관련하여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있으면 무엇입니까? ( )

② 없다 : 없으면 어떤 사항을 지원 받고 싶으십니까?
( )

〈건강 관련 문제〉

건-1.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건-2. 질환이 있습니까? (신체적 질환, 정신적 질환 모두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주요병명:)

건-3. 귀하는 평소에 우울감을 느끼십니까?

건-3-1. (①,②번 체크시) 현재 병원 치료를 받으십니까?

① 병원에 간적이 없다　② 전에 병원에 갔지만 현재 가지 않는다
③ 우울 증세와 관련하여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건-4. 살면서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건-5.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나랑은 관계가 없다 (왜? 사유는?)

② 나도 걱정된다 (왜? 사유는?)

건-6.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있으면 무엇입니까? ( )

② 없다 : 없으면 어떤 사항을 지원 받고 싶으십니까?

( )

〈경제적 문제〉

경-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없음(무직)(→ 경-1-1로)　②있음(알바/일용직)

③있음(계약직)　④있음(정규직)

경-1-1. 없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

경-2. 월 소득은 대략 얼마인지?

①50만원 이하　②50~100만원　③100~150만원

④150~200만원　⑤200만원 이상

경-3. 본인의 주거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

경-4. 본인의 재산은 대략 얼마인지? (약 원)

경-5.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경제적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경-6. 지금의 소득과 재산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합니까?

① 가능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하다(→ 경-6-1로)

경-6-1.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① 재산, ② 소득, ③ 기타 ( )

경-7. 경제적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있으면 무엇입니까? ( )

② 없다 : 없으면 어떤 사항을 지원 받고 싶으십니까?

( )

〈 기타 〉 - 주관식

주-1. 현재 또는 향후 정부나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위해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2.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강은나 외, 2017, 도시지역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보건사회연구 37권 2호 184~215

강은나 외,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234권 47~56

강은택 외, 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3~23

권혁철 외, 홀로 살아야 행복한, 중년 남성의 삶 - 4050세대 1인 남성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67~290

김대일, 2018,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경제학연구 66권 2호 5~43

김시월 외, 2015, 중·고령 1인 가구의 소비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제3호 89~118

김연옥, 2016,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권 0호 139~166

김윤영, 1인 가구의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 인천지역 중심,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1~30

김종숙 외, 2014,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4권 0호 1~132

김진희, 2018, 1인 가구의 이웃관계 특성과 사회적 고립수준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총220페이지

김혜련 외, 2017,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인구학적 정신건강 특증 : 4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2호 131~133

김혜영, 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권 2호 155~292

박만자, 2018, 중장년층의 자아 통합감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지 2018년 25~40

박미진, 2010, 빈곤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권 3호 895~910

박미현, 2018, 장년층 1인 가구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글로벌사회복지연구 8권 1호 5~24

박진영, 사회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6권 0호 1~22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2012년 4월호(통권 제85호) 55~67

변미리, 2015,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미래연구센터 2015.07.03. 총229 페이지

변미리 외, 1인 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0호, 1~18

윤승비 외, 2018,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비교 분석, 사회과학연구 44권 2호 15~37

이명진, 2014, 고립과 단절의 사회, 그 사회적 원인과 대응, 고려대학교 2014-08

이명진 외,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권 1호 229~253

이묘숙, 201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고립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이민홍,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15년 12월, 동의대 산학협력단

이병호,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참여 - 다인가구와 비교 -,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3호 348~373

이상철 외, 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정책 제24권 2호 61~86

이선희 외, 2015,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서울시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3권 3호 11~21

이여봉, 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은희 외, 2018,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4호, 179~203

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480~500

정경희, 가족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 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47-25

차승은, 2018, 중장년 일인 구구의 사회적 관계 : 청년, 중년, 노년 일인 가구의 특성과 사회활동이 가족학에 던져주는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05 22~27

하지경 외, 2017,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습관적 소비, 생활기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비1인 가구와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asearch 2017 vol55 no2 (통권 310호) 141~152

한성민, 2018, 1인 가구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1인 가구 세대별 특성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대학리포트, 1인 가구 특성과 증가원인 분석, 국내 해외 정책사례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2018.05.10, 총9페이지

인천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인천 1인 가구의 특성, 2018.01.17.

서울시복지재단, 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19,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일본,「長寿時代の孤立予防に関する総合研究 ～孤立死３万人時代を迎えて～」2014年12月 ㈱ニッセイ基礎研究所 特別研究プロジェクトチーム

일본, 明星大学研究紀要－人文学部　第 50 号　2014年3 月 我が国における社会的孤立予防施策 ~ アクターとその役割期待の検討 ~ 山井 理恵　　石田 健太郎

일본, 安心生活創造事業推進検討会、2012、『見直しませんか 支援のあり方・あなたのまち～安心生活を創造するための孤立防止と基盤支援（安心生活創造事業成果報告書）』厚生労働省。

일본,　東京の地域ケアを推進する会議、2011、東京の地域包括ケア～みんなでつくり出す365日24時間の安心～」東洋大学福祉社会開発研究センター編、2011『地域におけるつながり・見守りのかたち』中央法規出版

일본. 横浜市孤立予\防対策検討委員会報告書 孤立予防対策検討委員会 平成2 4 年1 2月1 9

일본,「고령자들이 혼자서도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촉진회의」의 보고서 /후생노동성(2008. 3)

일본,「単身急増社会」を考える / みずほ情報総研(2017.3)

일본, 中高年世代と社会的孤立, 八王子市中高年世代アンケート調査

新宿区の単身世帯の特徴 ~ 壮年期・高齢期の生活像 /신주쿠 자치창조연구소 (2016. 3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에 관한 조사 보고서 / 재단법인 동경시읍면자치조사회(2012.4)

高齢者の社会的孤立—\南九州市高齢者調査 /高橋　信行 / 地域総合研究　第41巻 第2 号（2014年）

A connected society :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r foundations for change(2018.10.15.)

「Loneliness and Social Connections: A National Survey of Adults 45 and Older / AARP Foundation survey(2018)

참고사이트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s://www.koweps.re.kr:442) (검색일: 2019. 7. 9.)

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平成22年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2013.12.28 参照)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k-tyosa10/3-2.html

아다치区 홈페이지 https://www.city.adachi.tokyo.jp/chiiki/korituzero.htm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onnected-society-a-strategy-for-tackling-loneliness

Connect2Affect 홈페이지, https://connect2affect.org/

서울시50플러스 2019-008
당사자연구 19-004

중장년층 남성 1인 가구 특성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방안 연구

발행인 2019년 11월

발행인 김영대

편집인 양안나

연구자 박준범 권병구 김민기 박홍민 오경석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5

발행부서 정책연구센터

기획정리 오진수 송민혜 강민지

제작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인쇄사업부

ISBN 979-11-89011-34-5

이 책의 판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19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한 '2019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www.50plus.or.kr

서울시 50 플러스 2019-008
50+당사자연구 19-004

서울특별시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비매품/무료
93330
9 791189 011345
ISBN 979-11-89011-34-5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층
02.460.5055
50@50plus.or.kr
50plus.or.kr
facebook.com/seoul50plus